

# 루마니아 이야기

kopower



## 소개글

루마니아에서 살아온 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목차

1	아이치 루마니아 27	6
2	아이치 루마니아 26	19
3	아이치 루마니아 25	28
4	아이치 루마니아 24	30
5	아이치 루마니아 23	31
6	아이치 루마니아 22	47
7	아이치 루마니아 21	56
8	아이치 루마니아 20	71
9	아이치 루마니아 19	78
10	아이치 루마니아 18	85
11	아이치 루마니아 17	87
12	아이치 루마니아 16	93
13	아이치 루마니아 15	101
14	아이치 루마니아 14	114
15	여기는 루마니아 13	130
16	아프리카 가나 방문 2	140
17	아프리카 가나 방문 1	154
18	파리 방문	165
19	아이치 루마니아 12	177
20	아이치 루마니아 11	184
21	아이치 루마니아 10	196
22	아이치 루마니아 9	209
23	발칸출장 3 - 코소보	221
24	발칸출장 2 -알바니아	233
25	발칸 출장 1-마케도냐	246

26	아이치 루마니아 8	259
27	한국에 온 로마니아 사람들	271
28	유럽에온 시골동내 방문객	281
29	아이치 루마니아7	299
30	아이치 루마니아 6	312
31	루마니아 골재 채취장	326
32	아이치 루마니아 5	339
33	아이치 루마니아 4	349
34	발칸 나들이-크로아티아 1	359
35	발칸 나들이 -보스니아(샤라예보)	376
36	루마니아 바다-흑해	386
37	루마니아 산행	394
38	아이치 (여기는)루마니아	405
39	동유럽과 발칸이 변한다.	412
40	아름다운 루마니아	418
41	루마니아 건축물	424
42	루마니아 사람들	430
43	아이치 루마니아	435
44	뭐라고 ? 대통령께서...	438
45	아이치(여기는) 루마니아.	442
46	아이치 루마니아	445
47	같이사는 사람들	447
48	루마니아는 원유 생산 수출국	449
49	루마니아 땅	451
50	아이치 루마니아	453

51	루마니아 한인들	456
52	루마니아 한인들	457
53	ISB 행사	458
54	루마니아의 한인들	463
55	부쿠레슈티 야경	467
56	여기는 마케도냐	469
57	알바니아 방문	472
58	헝가리 부다페스트	475
59	루마니아 콘스탄차 항구	477
60	작은 딸아이	479
61	나도 동양인과 한장	480
62	제 5 편 루마니아 사람들 (2)	482
63	도로건설 현장	484
64	클루주나뽀까	485
65	제 5 편 루마니아 사람들	487
66	제 4 편 한국 선별기	490
67	제 3 편 루마니아 골재장 및 건설업체	492
68	제 2 편 한국사람 한국장비	494
69	제 1 편 개 뺑다귀 같은 로마니아	496
70	루마니아 이야기	498

3월인데 ,개나리꽃이 피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렸다.

이곳은 뻬트로샤니라는 지역인데 너무 아름다워 차에서 몇장 찍었다,루마니아 참 아름답다...









우리 직원 IOANA, 3월의 설경속에서 사진을 찍고싶다고해서



그럼 나도 한장 .



사금 채취 사업을 할려니 관할 시장들과도 잘 지내야지.....,부카레스트로 불러 한국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고  
시 공사건과 시유지 불하문제등 하고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오늘은 사업얘기 일체안하고 음식만 맛있게 먹었다,루마니아 사람들 한국음식중에  
만두,잡채 불고기 소주 등 좋아한다





자연석인데, 참 신기한 돌들이 한곳에 모여있기에... 누구 이런 돌들에대해 아는분 없나요 ?











아니 컨테이너 트럭이 사고가 났는데 양쪽 차선을 다 막아버렸네,엄청 기다림.





네명의 친 자매인데 왼쪽부터 ....오른쪽 썬그라스가 막내라네요,우리 교회에서 열린 공연을 보고 가는중.  
한국사람.한국 문화를 아주 좋아하는 열열 팬들입니다,강남스타일도 잘 부릅니다...



로마 연합교회 이솔리스트 오페라 단원들,우리 교회에와서 3일간 부흥회와 공연을 했습니다.





목사님까지 총 10명이 와서 참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갖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두분이 홍어와 과메기를 가져와서 주위 모든분들과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모 기업 법인장님 환갑이라 또 다들 모여서 , 수도 부카레스트에 사는 한인들 전인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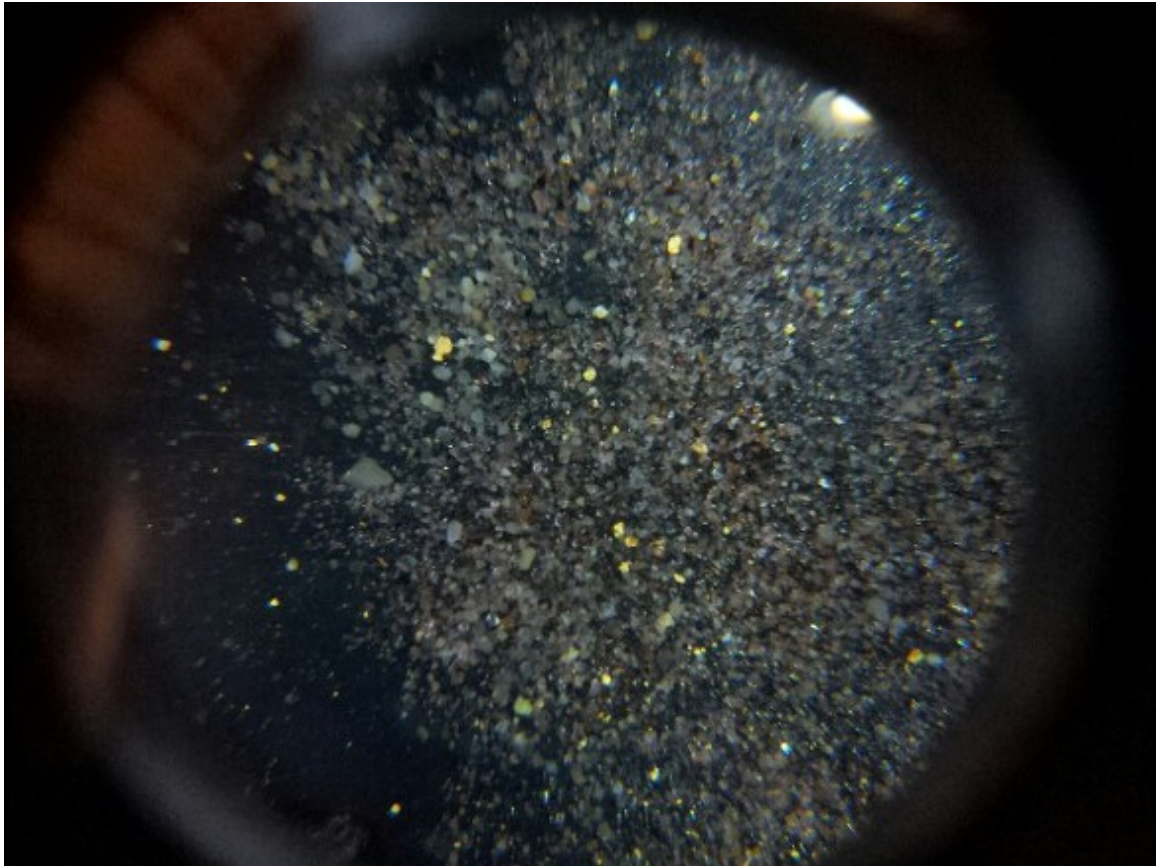


한국에서 친구가 사금 도구들을 셋트로 보내왔습니다,장비도좋고 이젠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 물에 떠다니는 미세 사금까지도 다 건져냅니다.



루베로 본 사금들





### 3차 성분 및 매장량 분석표 [루마니아 이야기 / 게시판](#)

2013/03/06 06:33 [수정삭제](#)

저번주에 4일동안 K1 ~ K6 지역중에 하천주위인 실제 사업장 부지를 대상으로 원석을 퍼와서 바가지로 패닝 작업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꽤 큰 알맹이도 여러개 건졌습니다 그동안 패닝하는 기술이 조금 는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주에는 한국에서 친구가 전문 패닝 팬과 루빠, 현미경등도 보내와서 다음에는 훨씬 큰 덩어리들과 패닝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바가지 하는데 길게는 약 30분 정도 걸리니 너무 힘듭니다, 예고 금이원지 그래도 알맹이가 보일땐 ㅋㅋㅋ



현장에서 퍼온 원석을 새벽3시넘게 패닝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이번 바가지에 꽤 큰 알맹이가 한톨 걸렸는데.....



엄지 손을 대고 얼른 핸드폰으로 한장....



이만큼이 한바가지에서 나온게 아니고요 약 열댓 바가지인 한20 kg 의 원석에서 나온겁니다.





이곳은 어느 지역이나 철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말 그대로 블랙샌드...

\* 3 차 "성분및 매장량 분석표" 입니다.

Raport de încercare 5/05.03.2013		
Beneficiar: S.C. Kopower Prod Comex S.A. București		
Probă: 5		
Prelevare probă: S.C. Kopower Prod Comex S.A. București		
Data prelevării probei: 01.03.2013		
Executant: Universitatea din Petroșani		
Component	UM	Conținut
Ag	g/t	0
Au	g/t	0,4
MgO	%	0,6960
Al2O3	%	11,4299
SiO2	%	52,8476
P2O5	%	0,3139
SO3	%	0,2214
Cl	%	0,0295
K2O	%	3,7819
CaO	%	2,6022
TiO2	%	2,3209
V2O5	%	0,0000
Cr2O3	%	0,5504
MnO	%	0,3906
Fe2O3	%	22,3109
NiO	%	0,1019
CuO	%	0,0000
ZnO	%	0,0000
GeO2	%	0,0505
As2O3	%	0,1550
SeO2	%	0,0477
Rb2O	%	0,1475
SrO	%	0,0723
ZrO2	%	0,0000
Nb2O5	%	0,0367
BaO	%	1,4380
PbO	%	0,0000

Întocmit,  
Conf. Univ. Dr. ing. Traistă D

이 지역은 새로운 지역인데 예상보다는 적게나왔네요.

## Raport de încercare 3/05.03.2013

Beneficiar: S.C. Kopower Prod Comex S.A. București

Probă: 3

Prelevare probă: S.C. Kopower Prod Comex S.A. București

Data prelevării probei: 01.03.2013

Executant: Universitatea din Petroșani

Component	UM	Conținut
Ag	g/t	32
Au	g/t	1,9
MgO	%	0,3582
Al <sub>2</sub> O <sub>3</sub>	%	7,0207
SiO <sub>2</sub>	%	60,6287
P <sub>2</sub> O <sub>5</sub>	%	0,2353
SO <sub>3</sub>	%	0,4146
Cl	%	0,0639
K <sub>2</sub> O	%	2,3893
CaO	%	5,3012
TiO <sub>2</sub>	%	2,1686
V <sub>2</sub> O <sub>5</sub>	%	0,0168
Cr <sub>2</sub> O <sub>3</sub>	%	0,0000
MnO	%	0,7760
Fe <sub>2</sub> O <sub>3</sub>	%	16,1241
NiO	%	0,0527
CuO	%	0,0775
ZnO	%	0,0000
GeO <sub>2</sub>	%	0,0241
As <sub>2</sub> O <sub>3</sub>	%	0,1274
SeO <sub>2</sub>	%	0,0000
Rb <sub>2</sub> O	%	0,0383
SrO	%	0,1207
ZrO <sub>2</sub>	%	0,1751
Nb <sub>2</sub> O <sub>5</sub>	%	0,0000
BaO	%	0,8915
PbO	%	0,0000

Întocmit,  
Conf. Univ. Dr. ing. Traian Eugen



이 지역도 새로운 지역으로 강이 아닌 하천 옆 부지인데 1.9 g/t 이라 ....



## Raport de încercare 4/05.03.2013

Beneficiar: S.C. Kopower Prod Comex S.A. București

Probă: 4

Prelevare probă: S.C. Kopower Prod Comex S.A. București

Data prelevării probei: 01.03.2013

Executant: Universitatea din Petroșani

Component	UM	Conținut
Ag	g/t	120
Au	g/t	1,9
MgO	%	0,3647
Al <sub>2</sub> O <sub>3</sub>	%	6,3149
SiO <sub>2</sub>	%	65,9779
P <sub>2</sub> O <sub>5</sub>	%	0,7188
SO <sub>3</sub>	%	0,1517
Cl	%	0,0431
K <sub>2</sub> O	%	2,3411
CaO	%	3,0752
TiO <sub>2</sub>	%	1,7406
V <sub>2</sub> O <sub>5</sub>	%	0,2069
Cr <sub>2</sub> O <sub>3</sub>	%	0,0000
MnO	%	0,4549
Fe <sub>2</sub> O <sub>3</sub>	%	17,2577
NiO	%	0,0597
CuO	%	0,0000
ZnO	%	0,0000
GeO <sub>2</sub>	%	0,0223
As <sub>2</sub> O <sub>3</sub>	%	0,1648
SeO <sub>2</sub>	%	0,0000
Rb <sub>2</sub> O	%	0,0363
SrO	%	0,0860
ZrO <sub>2</sub>	%	0,0000
Nb <sub>2</sub> O <sub>5</sub>	%	0,0000
BaO	%	0,0000
PbO	%	0,0000

Întocmit,  
Conf. Univ. Dr. ing. Traista Edge

이곳은 2차 분석때 3 g/t 이 나왔던 곳으로 약 50 m 근방원석으로, 2차 때보다 금의 함량은 작게 나오고 은의 함량은 더나왔네...



## Raport de încercare 2/05.03.2013

Beneficiar: S.C. Kopower Prod Comex S.A. București

Probă: 2

Prelevare probă: S.C. Kopower Prod Comex S.A. București

Data prelevării probei: 01.03.2013

Executant: Universitatea din Petroșani

Component	UM	Conținut
Ag	g/t	118
Au	g/t	1,3
MgO	%	0,4340
Al <sub>2</sub> O <sub>3</sub>	%	9,1290
SiO <sub>2</sub>	%	64,2445
P <sub>2</sub> O <sub>5</sub>	%	0,2168
SO <sub>3</sub>	%	0,2502
Cl	%	0,0258
K <sub>2</sub> O	%	2,3309
CaO	%	5,0840
TiO <sub>2</sub>	%	2,2835
V <sub>2</sub> O <sub>5</sub>	%	0,0757
Cr <sub>2</sub> O <sub>3</sub>	%	0,9721
MnO	%	0,2889
Fe <sub>2</sub> O <sub>3</sub>	%	13,0511
NiO	%	0,0258
CuO	%	0,0000
ZnO	%	0,0000
GeO <sub>2</sub>	%	0,0155
As <sub>2</sub> O <sub>3</sub>	%	0,1203
SeO <sub>2</sub>	%	0,0000
Rb <sub>2</sub> O	%	0,0311
SrO	%	0,0901
ZrO <sub>2</sub>	%	0,2052
Nb <sub>2</sub> O <sub>5</sub>	%	0,0000
BaO	%	0,0000
PbO	%	0,0000

Întocmit,  
Conf. Univ. Dr. ing. Traistă Eugen

이곳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

이곳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패닝 작업 해보면 유관으로는 전혀 금을 볼수 없는데 분석표에는 나온다 ????



## 사금 2차 성분 및 매장량 분석표 [루마니아 이야기/ 게시판](#)

2013/02/19 16:51 [수정삭제](#)

[전용뷰어 보기](#)

[복사 http://blog.naver.com/kopower21/30159986536](http://blog.naver.com/kopower21/30159986536)

[첨부파일 \(1\)](#)

저번주에 "2차 성분 및 매장량 분석표"를 받고 다시 한번 K1 ~ K6 지역까지 여러 분들과함께 직접 시추작업 했습니다,분석표의 결과도 역시 시추하면서 예상했던 지역에 매장량이 많이 나와서 초보지만 제가 시추한 작업이 어느정도는 정확했다는 결과라서 전문가가 된 기분입니다.

이번 분석표는 K1지역에서 K6 지역까지 반경 약 70 km 지역 6곳의 원석 자체를 3 kg씩 퍼다가 의뢰한 결과물로 곧 3차 정밀 시추도 예정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사금 채취 해봤습니다"편은 첨부 파일에 담아 있습니다.

주위의 권고로 내렸는데 굳이 그럴 필요없다는 생각에요,모든 세상은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인데 그 모든이들 눈의 잣대를 맞출 필요가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일에 개의치않고 이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

이사장 ! 쪼매 더 깊이 파보그라 .....,아따 삽이 안들어 간당게요....

---

조금 더 깊이파고 속에있는 원석을 시추해보려고 하는데 돌맹이가 많아 파기가 쉽지않네요.

---

저번보다 약 4km 더 내려온 지역인데 위치가 좋아보이는 지역이라 이번이 다시 시추했습니다.

---

보리 밭인데, 이밑에는 금밭이라....

---

여러 분들이 보는 앞에서 현장 에서 직접 시추해서 결과물을 얻었습니다,한 바가지에 한두톨 나오면 톤당 얼마나 될까 ??? 서로 계산들을 하는데 계산이 잘 안되네요...

---

이 지역이 가장 많은 매장량의 지역인데 세톨의 크기가 다른 노란 사금 조각이 보이네요.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웃을 야그지만 ,저도 반 전문가가 된 기분입니다 ㅎㅎㅎ

손은 좀 시려워도 날씨는 많이 풀렸습니다.

곧 댐이 완성되면 이 지역은 수몰될텐데 그안에 파야할텐데...

열심히 바가지를 돌리고 돌리고,땅이 돌발이라 더 깊이 파고싶은데 안되네요.

이 지역이 제일 많은 곳같습니다,금반 모래반 !

이 강옆에 약 20여 ha 의 땅이 일차 예정지 입니다.

더는 도저히 못파보겠네요,그냥 이쯤해서 샘플 작업 해보자 켱켱...

K1 지역의 성분 및 매장량 분석표인데 이곳은 예상보다 매장량이 많네요.

역시 이 지역은 금이 없네요,  
시추결과도 안 보였거든요.

이곳도 역시 근방이라 없다 ?  
혹 샘플 원석을 잘못 갈다주었나 ???

이 지역부터는 다시 조금씩  
있다 ???

음 ! K6 지역 , 역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곳으로,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이번 분석표중 가장 많은 매장지역이네요.

 [사금 채취를 해보려고 합니다.docx](#)

아이치 루마니아 24 편은 삭제 하였습니다.

이 블로그는 어떤 상업적인 부분을 떠나 멀리 고국을떠나 타국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내 주위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과 글을 올리는데

취지와 달리 상업적인 모양세로 비춰지는 것 같아 삭제하였습니다.

못봐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살짝 보여드릴께요 ㅎㅎ

그동안 부족한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위로와 격려,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3 년 한해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바" 시청 앞에서 "미스터 일리에" 란 십년지기 친구와 - 이친구 소개로 근 6 년만에 이곳 루마니아땅에 다시 골재 채취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공산당 시절부터 루마니아 자원 개발 공사에 근무하던 친구인데 그동안 내게 많은 바이어들도 소개해주고 .... 이곳에서 광산업을 해보자는데 뭘 알아야지 ? ? ?





후네도아라 주 하체그 시 에있는 회사 사옥겸 사무실입니다.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460km 떨어진 작은 도시인데 옛날 공산당 시절에는 광산들이 많아 활발했다는데 지금은 조용한 도시입니다.



우리 골재장이 들어설 현장입니다. 이런 호수를 한개더 만들고 그후엔 루마니아 최초로 공룡 파크를 만든다네요. 우린 그 토목 기반 공사에

앞서 골재를 파내고....유럽환경보조기금 2000만유로 받아 중국 회사와 파크조성 계약하여 내년 후반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군요, 그렇다면 저기 언덕 자락에 헐값일때 땅좀사서 호텔하나 지으면 ㅋㅋㅋ



한국에서 들여온 선별기 입니다, 엔진 동력장치 회전 선별기로 이 모델만14대째로 이 모델이 루마니아에 들어온지 16 년이나 되었는데 여러 사정상 아직도 모델을 못 바꾸고 있습니다 .





이 선별기의 가장 큰 단점인 모래와 콩자갈 배출구에 콘베아 를 설치하고 모래 스크류를 따로 장착했습니다.

이런 저런 장비 20여대를 한국에서 들여와 각각 현장에 맞게 셋팅하고, 골재장을 몇곳씩 운영했었는데 이번 현장 조립 하면서 나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낡은 콘베어 사다가 수리해서 우리 현장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않네,한국에서 들여오자니 시간이없고 이나라는 모든게 다 수입이라 공산품등이 너무 비쌉니다.



"모래 스크류"거의 고철인데 가격은 ?





우리 현장 기사 "더누츠" 가족 오늘 현장 조립을 마쳤는데 생일이라네요,가족들과 함께 생일 파티겸 식사...



자연산 "송이버섯" 너무 피었는데 그래도 어딴니까 ? kg 에 약 3유로에 사다가 깎아 생으로 먹는데 우리나라 송이보단 향기가 덜 합니다.





되지고기에 감자 토마토,가지,호박,올리브,버섯 그리고 위에다 치즈를 듬뿍....이게뭐야 ? 그냥먹자 남남 !



루마니아 스파케티 맛있습니다,물론 저는 스파케티 안좋아 하는데....







오면서 가격도 4유로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일반 식당에가면 주문하는데까지 30분 음식 나오는데 30분 먹는데는 5분,가격은 일인당 20 유로 정도...



오늘은 우리교회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우~와 혼자 다 먹고싶다. 집사님 :그러면 배 터져 죽는거여 ㅋㅋㅋ,여 집사님들 : 아~ 멘,아~멘



"쌈"이라는 한국 레스토랑에서 오랜만에 그 귀한 막걸리를 마시며 일장연설하고.....그래도 얻어먹고 싶어...



미술 전공하고있는 작은아이 작품입니다 .





한국에서 화가분들과 조각가 10분들이 루마니아에 오셔서 전시회를 갖었습니다.  
뒷골목 초라한 건물 한켠에 작품도 몇점없이.... 아마 전시 경력서 만들로 오셨는지...  
작은아이가 미술을 하기에 시간내어 왔는데....온김에 사진이나 한장 찍고 갑시다.





국민의 귀한 한표를 행사했습니다,루마니아 투표율 92 % !



광물로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전량 서유럽에 판매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도 백운석이란 광물을 취급해 보려고 견학왔습니다.





1차 파쇄한 원석을 더 작은 입자로 분말화하는 기계입니다,총 9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내부에는  
집진설비도 잘 갖추어져있고 설비 투자가 꽤 되어 보이네요.



내수는 전혀안하고 전량 서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루마니아는 ? ,다른 수입하는 업체가 비싼값에 서 유럽에서 수입해서 서유



럽보다 훨씬 비싼값에 팔고 있습니다(루마니아산은 무조건 가격이 반값 이하이니 별 생산성이 없는것이죠),이것이 루마니아의 현 시장 시스템이며 루마니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산화 칼슘의 원자재



외부에서 1차 파쇄를 임페트 크랙샤로 깬다음 2차는 실내로 이동 밀롤로 파쇄후 다시 3차 분말화....



수도 부카레스트의 메인 도로에 매년 성탄 휴리를 하는데 올해의 모습입니다.





첫 눈이 내린 루마니아의 산야.



올해도 수도에서 열린 엑스포에 전시중인 한국 비닐 하우스 모델 ,역시 5일간 사람들이 발 들일 틈이없었다..





올해 새로 한국에서 들여온 묘목 난방 시스템인 전기열선 방식, 올해 최고로 인기가 좋았다.



농약 살포기도 들여와 전시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다....,





유럽의 한 농기계 업체에선 루마니아 전통 공연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통 고기 음식인 "미치"를 구워파는 곳.





빵파는 아가씨 얼굴이 빵빵하네...



와인을 직접 틀에서 짜면서 팔고 있었는데, 와인은 최소 일개월이상 숙성이 되어야 하는데...





루마니아에 자연산 꿀 정말 좋습니다,그러나 이제는 가격이 만만찮네요.



"순 양털모자" 역시 가격이 생각보단 비싸네....





올해는 엑스포장 입구에 음식 코너를 배치해서인지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는 클루주 나뽀까의 주말 벼룩시장 입니다.





흠 ! 뭘 하나 건져 볼려고 열심히 둘러보는데.....



그래도 부카레스트 보다는 순수한 물건들이 있네...





루마니아에도 가을이 왔습니다,물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단풍하고는 비교가 안되지만,그래도 어째 마음 한구석에 가느다란 고국의 가을이 그리움되어 밀려오네요..



이곳은 "름니꾸 블체아"에서 "시비우"란 도시를 가는 98km의길로 꼭 우리나라의 춘천가도와 같은곳 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일개 구만하 이곳 루마니아 수도인 부크레슈티에는 이런 큰 공원이 8 곳 이나 있습니다, 아니 작은 공원까지 합치면 수십 곳은 될듯.... 참 오랜만에 집 근방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HUNEDOARA GELRARI 란 곳에 약 3개월전에 판매한 기계인데 이제야 조립하고 시운전 하는 중입니다.  
 세상 급한게 없는 루마니아 사람들....으이구 ! 기계 대금 다 받고 판매한 내가 왜 이리 답답한지....





이 현장이 잘 돌아갈지 걱정되네 , 이곳에 원석이 약 600만 루배가있어서 우리 회사와 함께 이곳에서 일을 하자고 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복잡하네요....



3개월 전에 이 현장에 도착한 기계인데 이제야 조립하고 가동에 들어갔으니.... 기계 도색이 다 바래서 팔긴 팔았는데도 보기가 영 민망하더구만요.



자연산 숯 입니다,땅속에 몇백년 아니 몇천년전에 형성되었다는 퇴적층인데 완전히 나무 숯과 똑같더군요.







저기 보이는 검은 층이 숯층입니다,일단 위 흙을 걷어내고 채취하고 있었는데 숯에 흙이물은 층을 우리 선별기를 구입하여 썰어서 팔려고 의뢰가 왔더군요,숯을 씻는다 ????? 기계를 팔기는 팔아야겠고 ???  
우리 회사와 합작을 하자는데 글썄요 ,별로 자신이 없고,그냥 기계만 팔아야 허건는디 ?????



이 숯들은 더운 여름엔 물과 합쳐지면 자연 발화를 한다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곳곳에 불이 붙어 있더군요.  
열 에너지 효율인 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발전소나 지역 난방공사등지에서 전량 구입을 해간다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최신 장비들을 들여와 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가 보니까 장비가 아깝데요.

저 많은 고급 장비들을 들여와 일하는 형태가 망하기 딱이더구만,그래서 광산주가 나를 찾아와 합작하자고 하는데 과연 채산성이 있을까 ?  
요즘 머리 쓸일이 너무 많아 골이 복잡합니다.



태어나서 별일 다 보고 있습니다, 땅 속에 자연 나무 숲이 있고, 그 숲이 더운 여름엔 자연 발화한다,현장 여기 저기에 숲들이 타고있다  
????



저런 잔 숯에 흙이 묻어 있는데 깨끗이 흙을 씻어내면 가격을 더 받을수 있다는데,에이고 흙보다 가벼운 숯을 어떻게 ,물에 다 떠내려 갈것 이고, 침전시키면 흙가루도 함께 침전될것같고....방법을 찾으란다 ㅋㅋㅋ





이 현장은 루마니아 북쪽 우크라이나 국경 근방 광물질을 채취하는 현장 입니다.



작업 현장 장비 배열이 엉망이라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더군요,현장 소장이란 사람과 이야길 나눠보니 썩  
기분좋은 투로 설명을 하는데 가타부타 말을 안하고 그냥 그러냐고만 하면서 듣고 있자니 으이구 내가 사장이라면 한대 주어박고 싶은  
데....멍청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이 회사 사장이 통 사정을 하네요,이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뢰해 왔는데 보통 이런 경우 전체  
컨설팅을 해주고나면 기계를 구입 안한다든지 다음으로 미루든지,다른 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이곳에는 반듯이 우리 계계를  
팔아야....



이 현장 컨설턴트를 위해 3일간 출장을 나와있는데,이 현장엔 별로 팔아먹을 기계가 없네요,그러나 이 회사에서 다른 곳에 새로이 현장을 오픈할 계획이라 그 건을 보고 ....





뭘 의미하는지 ... 찍고 보니 이상한 탑이네...



루마니아 !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 마을에서 하루밤 쉬어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3일간 저곳에서 숙박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산소  
냄새가 납니다....





스위스 알프스보다 더 멋진곳 많습니다, 인위 적으로 꾸며지지않은 자연 그대로의 시골 마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정중히 초대 합니다,언제든 훌쩍 날아 오시면 저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차 세워두고 그림한장 그리고 가고 싶은데....



사는게 뭐 별거있냐 싶다가도 오늘 같같이 약 500키로 남았는데 ....열심히 달리자.....



루마니아 북쪽 지역인 수체아바 지역에 있는 5대 수도원중 한곳인데 유네스코 문화제로 지정된 곳입니다. 저 수도원 건물에 그려져있는 벽화



가 유명합니다.(몰도비차 수도원)출장 간김에 둘러보고 왔는데 몇년전 우리나라 종교학 교수님16분이 다녀가셨는데 제가 안내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주일이라 입장료를 안받네...

길고 길었던 겨울도 가고 루마니아에도 봄이 왔다.

눈도 눈도 많이도 왔던 겨울을 뒤로하고 시내에있는 6홀짜리 골프장도 개장해서 주위 분들과 한게임.



1번홀 234m 한방에 올려 부러야지.....





동면을 하는 인삼이 봄을 아는지 뺨뚱이 머리를 들고.....루마니아 인삼 농장에 있는 3년생 삼입니다.



사무실 한켠에 있던 화분에서도 인삼이 모습을 드러내고



올해 들어 밭에 있던 인삼 10뿌리씩 다섯곳에 50뿌리를 팔았습니다,루마니아 사람들이 우리 회사 사이트를보고 화분이나 밭에다 심는다고 주문을 해오곤 합니다.3년생 한뿌리에 15론씩 파는데 인기가 좋네요....





작년에 한국에 갔을때 감 먹고 씨앗을 20개 가져와 루마니아에서 싹을 틔워 1년을 집에서 키운뒤 올해 밭으로 분가 시켰는데 몇년 후면 루마니아에도 감이 열릴것을 기대합니다,곧 감장수 되겠다 ㅋㅋㅋㅋ



겨울에 싹틔운 은행 나무 200 그루를 오늘 밭에다 심었습니다,작년에 심은 은행나무 20여 그루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대 생각보다 잘 안 자라는군요,거름이 없어서 ?



거실 화분에 심은 은행나무, 제일 이쁘게 자라고있는 2년생인데 보기에 좋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라 감개무량....





외국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할수 있게되어 마음이 뿌듯합니다,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 꼭 투표를 하자고 홍보 많이 했습니다.



음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참관인 세분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네요,앗 ! 저아줌마는 누구지 ?





아침에 나와보니 집앞 도로가 장난이 아니다.



사방 천지가 눈인데 치울일이 까갑허네....



그제 3시간에 걸쳐 간신히 차만 빠져 나갈수있게 눈을 치웠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다시 원상태네.....우리차 세대 눈 다 치우려면 나는 거의 실신하고 말것이다....





그래도 형님내 하우스 현장이 염려되어 도로로 나와보니 도로도 거의 막히고 큰 도로만 뚫렸는데 연일 뉴스에서 루마니아 전국이 눈으로 난리들이다.



어마어마한 눈이다,치울곳도 없어 보이네...



일단 마당부터 치워야 할란가 ?



다행이도 아직 무너진 하우스는 없는데 위험 직전의 상황이다.





일단 현지인들 10명 대리고 눈을 가운데로 모으며 하우스에 살인 눈부터 긁어 내려야겠지....이렇게 해두면 앞으로 30cm 정도의 눈은 더 견딜 것이다.



제일 뒷 편에 있는 인삼 하우스는 어찌 되었는지 길을 만들며 전진,전진



오후에 시내로 돌아오니 시내도 난리들이네 ,트렌바이 라는 전차가 오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온통 차도는 신호도 무시원채 미끄러지는 차들로 난리들이다.







눈이 한번오면 저정도는 와야지 !

올해는 예년같지않게 1월까지 눈 한번도 안오고 따뜻하더니 갑자기 쏟아붓기 시작하더니 많은 눈이 내렸다.

루마니아 전국이 곳곳에 도로가 폐쇄되고 마을이 고립되고 얼어죽은 사람들이 발생했다고 연일 뉴스의 모든 시간들이 북적된다, 계속되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좀처럼 보기힘든 몇일간의 시위가 잇다르더니 결국 총리가 물러나고 대대적인 개각이 단행되었는데 새로 임명된 총리가 44세로 전직 KGB 간부란다,또 새로 바뀐 몇명의 장관 중에는 삼십대 초반도 두명이나 있다.32세,34세의 장관들이라 ㅋㅋㅋㅋ,대통령은 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건들건들 거리며 팔짱낀 자세로 담화문을 발표하며 실실거리며 웃으며 농담 따먹기하듯.... 이나라도 웃기는 나라같다,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며 국민들은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끔 짹 씹으며 ㅋㅋ

물가는 서유럽하고 비슷해졌다,아니 오히려 더 비싼것 같다, 기름값,전기료,가스비,통신료 식료품 등등....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끼 간단히 하려해도 일인당 약 15~20유로 정도,우리 한국에서 오신분들은 뭐 이런나라가 ....하면서 바가지 씌우는줄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같이 살면서도 이해가 잘 안갈때가 많다,조금 있는 사람들은 일이십,일이백 유로 돈같이 생각지도 않는다.

취불도 없으면서도 작은 돈(한국돈 1000원 정도) 은 돈같이 않게 여긴다,거지들도 받으면 화낸다.

상점에서 물건사고 거스름돈 거의 안 받아간다. 잔돈까지 챙기는 나를 보고 점원이 고개를 가우뚱 거린다.

주유소에서 기름넣고 잔돈을 왜 안받아가나 ?,담배 한갑 사고 잔돈을 받아가면 이상해지는 나라가 되었다.

불과 십년 전만해도 1불이면 큰돈이었고,월급 50불 받아도 어렵지 않게 살았던 루마니아였는데....



방 두칸짜리 작은 단독주택의 한달 난방용 가스비가 아끼고 아껴도1400~1800 lei(약 350~450 유로) 인데  
집안에서도 추워서 옷입고 있어야할 정도인데.... 한달 월급받아 가스비내면 땡이라고 울쌍들이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루마니아의 어려운 점들만 야그하게 됐네 ....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놓은 인삼이 황금 빛으로 변해가네요. 결국 화분에담아 화초로 집에서 키우기는 별로 가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년을 루마니아땅에서 자란 인삼입니다,생각보다는 크질 않았는데 거름을 안주어서인지 ? ...



제게 주시죠 ! 요즘 밤에 영 기력이 없어서.....



날씨가 추워져서 혹 얼어 죽을까봐 노지에있던 삼을 다 케내어 하우스 안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새로 인삼을 옮겨 심으려고 하우스 한동을 지었습니다.





좀더 발달된 지식과 경륜으로 본격적으로 인삼을 키울 마음으로 하우스안에 심었습니다.



작년에 노지에 심을때 너무 얇게 심어서 물이 가물때 잘 안자라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아온터라

이젠 조금더 깊이 그리고 물주기도 편하게 하우스안에 심고 차광막을 씌우면 노지에잇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잘 자랄듯 싶은데....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인삼 제품들을 전시해두고 몇일 있으면 루마니아 식약청과 보건 복지부의 인.허가가 나오면 이곳 루마니아에 인삼 제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 인삼 사이트를 만들고 홍보에 들어갔습니다([www.redginseng.ro](http://www.redginseng.ro))인삼 가공 제품은 한국에서 들여오고 이곳에서 키우는 인삼으로 화분에 담고,생삼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아주 더디가네요.



루마니아 지도입니다,위도 42 ~48 도 경도 25도 선상에 있는 나라로 기온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땅이 아주 비옥하고 강수량과 일조량도 좋은 축복 받은 나라로 12해리의 흑해를 끼고있으며....



수도 근교의 9홀짜리 작은 골프장에서 골프 대회를 갖는날 루마니아 대통령 영부인을 비롯 많은 외국 대사의 부인들이 참가하고 유명한 가수 까지 초대하여 푸른 잔디위에서 루마니아 전통 가요를 ....





왼쪽 남자분 옆의 여성분이 루마니아 대통령인 버세스쿠의 부인입니다.북한과 대치 하고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제지나 통제도 전혀없고 경호원들도 전혀 볼수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자연그럽게 사진도 찍고 촬영도 자유스럽기에 나도 핸드폰 꺼내서 한컷트....



조그만 시골 동네에 들어선 야시장의 모습,이런 날이면 온 주위 동네 사람들의 큰 잔치날입니다.



제품의 거의 모드가 중국제품이더군요,대단한 짱게들.





작은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날, 주위 분들이 축하해주시기위해 오셨는데, 아니 오늘 졸업식을 사정상 못하고 연기 한다네요 이런 황당한 일이.... 이곳이 루마니아 입니다. ㅎㅎㅎ



자자 ! 오신김에 사진이나 한장 찍읍시다.루마니아 한인 분들은 이렇게 살니다,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다같이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사람내음 풍기며사는 루마니아 교민사회입니다.



비록 졸업식은 연기되었어도 꽃도 받았으니 졸업 축하 사진을 남겨야지....





다섯살때 루마니아에 온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네요.



오늘은 연기되었던 졸업식이 정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교민분들이 미안하게도 두번 씩이나 졸업식에

축하해 주시기위해 오셨는데 조금 미안하고,영국에 있는 큰아이도 방학해서 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무대 디자인을 전공하는 작은 딸 인데 지금은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예술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라는데 이제 졸업하면 루마니아를 떠날 계획이라 소중한 친구들과 ....우리네 졸업 풍경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얼굴 생김새가 동 .서양이 확실히 다르게 구분이 되네요.

루마니아에서도 "인삼"이 밭이나,산에서 잘 자랄까 ?

처음 인삼씨를 가져와 파종하여 싹을 틔우고,루마니아 산과 밭에 인삼을 심었는데 역시 생각했던대로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흙은 아주 비옥하고 이나라의 위도나, 경도, 날씨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니...

아래 사진들은 얼마전에 만든 농장 인삼밭입니다. 농장 밭에있는 인삼을 화분에 담아 사무실로 가져와 이쁘게 진열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루마니아 시장을 토대로 유럽 시장에 인삼 화분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과연 유럽 사람들의 반응은?

독일에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독일인이 우리나라의 인삼을 가져다가 심고 재배를 하여 지금은 각종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더군요,

제 생각은 앞으로는 인삼을 집에서 직접 키워 필요할때 자기가 키운 인삼을 복용한다, 그리고

화초로 자라는 모습도 보고 키우는 즐거움도 다른 화초에 뒤지지 않을것이라 생각하는데....



인삼 밭입니다.





3구 5행 에 인삼 열매(씨앗)인" 딸"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큰 도자기 화분에 세 그루의 삼을 심었습니다.





4구 삼이 작은 화분을 꼭 채웠습니다.



화분의 종류와 크기가 달라 쉽게 그 크기를 알아볼수있게 담배갑을 옆에 두었슴.







모양세가 특이한데 역시 도자기 화분입니다.





뿌리도 많이 자랐더군요.





약 삼천 구루정도 심었는데 거의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제가 신경 엄청 쓰고 있거든요.



인삼밭 앞에 얼마전 형님이 둥병을 파고 붕어를 많이 풀어놓았는데....





약 두달세 아주많이 컸더군요 약 500마리정도 되는데 가끔 잡아다가 메운탕 끓여먹고 있습니다.  
인삼이 조금만 더 크면 메운탕에 인삼을 넣고 음 ~~~~



사무실 한쪽에 ,아니 온통 여기저기 인삼으로 꽉 찼습니다,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질투를 한답니다.





도자기의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 안쪽 밑에 돌을 깔고 화분처럼 삼을 심었습니다.





저 나무 발침을 깔으니 한층 화분이 멋지긴 한데,이런 저런 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집 거실에있던 양란이 꽃을 행운의 일곱 송이를 피웠습니다.





나무 화분에도 세그루 심었는데 삼 딸이 크게 잘 열렸네요.



작년 11월에 발아시킨 은행 나무입니다. 일부는 분제로 키우려고 하는데.... 은행나무는 약 120 그루가 잘 크고 있습니다.





인삼 ! 드디어 싹을 틔워 그 "순"이 올라왔습니다.

쓸쓸한 외국생활! 더군다나 겨울이라 회사 업무도 한가해서 취미 삼아 이나라에 귀한 나무들을 씨앗을 구해 싹을 틔워 보려고 시작했는데 약 40일만에 아래 그림처럼 인삼 그리고 은행나무,등을 발아시켜 잘 키우고 있습니다.앞으론 인삼을 집에서 직접 키워 복용하고 몇 뿌리씩 가보로 자손에게 내려 준다면 집집마다 몇 백년된 삼이 ㅎㅎ (내 생각)



집에도 사무실에도 전체 약 100 알 정도 심었는데 약 53개정도 순이 올라왔습니다.



"사무실에 심어놓은 인삼들"(창문 빛을 블라인드로 가리고 키우는데 더 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아닌)



집에서 키우는 인삼들은 햇빛을 직접 쏘이기도 하는데,햇빛을 가려야 하는지,쏘여도 상관 없는지 ?



물은 얼마 만큼 줘야 하는지, 도대체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인터넷을 뒤져봐도 내가 원하는 정보는

다들 전문 용어를 사용하니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가 기초 지식이 너무없고 등등등....

딱히 답답하고 그래서 일부는 물도 많이 주고, 일부는 햇빛을 가리기도하고 등등 실패를 거듭 해보면서 직접  
체험으로 터득해 보려고 하는데 길길이 멀기만 합니다,누구! 잘 아는 분 있으면 갈쳐 주십시오.



꼭 콩나물 아니 숙주나물 같이 올라오는게,이젠 적어도 저만큼은 어떻게 키우는지 잘 압니다.



작년 11월 집에있던 은행 5섯알을 무심코 키워보고 싶어 종이 컵에 심었는데 얼마나 궁금하고 답답하던지  
이삼일만에 한번씩 파서 꺼내보길 근 한달만에 싹이 보이는데 와 ! 그 기쁨이란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





다섯 알중 두개만 싹이 나고 세계는 썩었다,그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었는지 ?,또는 너무 건조했는지 ? 한개는 내가 발아가 너무 늦기에 빨리 싹이 나오라고 껍질을 벗겨 심었더니 그냥 썩더군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엄청 해보니까 옆에서" 아이고 그것들 몸살나서 죽것네!"하며 염장을 질러도 참고...



드디어 큰 것은 화분에 이양 ? 했습니다,그런데 뿌리가 실 뿌리는 전혀없고 아래로만 쪽 5센티정도 내려 뻗는데 얼마나 여리고 약한지 잘 부러지기에 일단 한그루만 심어보고 (나도 머리 엄청 쓰고 있습니다.)



결국 두 그루중 한 그루는 내가 다른 나라 출장(8일) 중에 죽었다는 비보를 받았는데 얼마나 안타깝던지, 주인이 없어서 자살했는지, 아니면 마누라가 학대,구박,일부로?(나는 지금도 그놈이 왜 죽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아래 사진처럼 한 그루는 3개월째 아주 튼튼히 나무의 형태를 꾸며가며 잘 자라고 있다.





이제는 싹을 틔우는 방법을 알아 아예 모판에다 씨 22 개를 심어 다 싹을 틔워 다 잘 키우고있다. ㅎㅎㅎ  
우리 형님 농장에도 110 개를 심었다. 최소 100개는 건지려는 생각에서...



작은 아이 방 창가 틀에도 화분에 이양해서 쪽 키우고....



거실 창가에도 쪽 키우는데 집사람은 너무 많다고 투덜투덜 ,흠이 떨어 진다나....너무 많아 정신이 없으나,  
배란다에 갔다 두라고 하는데 이나라 배란다는 엄청 출거든요 ,어떻게 키운 놈들인데 얼어 죽으면 ㅜㅜㅜ  
요즘 씨앗 발아시켜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 나무들 키우는데 집중하다보면...  
아이들 키우면서도 이런 기쁨을 몰랐는데,일어나면 보고,퇴근하면 옷도 벗기전에 살펴보고,물도주고....





아래 사진속의 두 씨앗은 "이름"을 아직도 모릅니다.(아는 분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

작년 여름에 프랑스 파리에 갔을때 아는 분과 마트에 갔는데 야채와 과일코너 중간에 못보던 열매가 있기에

저것은 무엇이냐고 그분께 물어보며 한두개씩 몰래 따 먹었는데,먹고나니 그 씨가 얼마나 이쁘던지 꼭

흙 수정이나 사파이어같이 반짝 반짝 빛이나기에 무심코 주머니에 담아왔다가 은행 심을때 생각이나서 같이 심었는데 은행보다 먼저 싹이 올라오는데 중간에 씨앗이 달려서 흙위로 자라더군요.



한개의 화분에 세개를 같이 심었는데 한개는 물에 불릴때부터 조금 상했는데 결국 죽고 두개의 씨앗이 잘  
자라면서 서로 부딪히기에 분가 시켜 줄려다가 한 그루의 뿌리가 잘리는 바람에 결국 한그루도 죽고.....





현재의 모습입니다,약 4개월째인데 대는 가늘고 잎만 무성히 크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잎이 가지런히 다 오므리고,아침이 되어 빛이 있으면 다시 잎이 펴집니다.

빛과 어두움을 아주 잘 구분하며,물방울이 잎에다면 탁탁 물을 튕겨 버립니다.



낮에 잎이 펴진 모습, 크기는 약 30cm 정도 입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 잎이 오므려 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잎을 오므린 상태





철사 지지대를 대 주고 있는데, 왜 대가 굽어지지 않는지 ? 키만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두 그루만 되도 뿌리가 어떻게 뻗어 나가는지 파 보고 싶었는데 잘못 건드려 그나마 이놈까지 죽을까봐  
궁금한데도 더 지켜보는 수밖에....



인터넷에서 여기 저기 다니며 인삼이나 은행 등등 키우는 방법 발아요령 등을 찾아보고 있는데 어렵네요...

"단 감 씨앗 약 30개를 발아에 성공 했습니다,곧 싹이 올라오면 일단 화분에 심어서 키우다가 봄이되면 제 형님네 농장에다 심을 계획 입니다."

몇년 후면 이곳 루마니아에 은행나무 숲과 감나무 밭이 생길 것이며,누구나 집에서 인삼을 키워먹는 루마니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잘 키우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량으로 심어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해 주려고요,주위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징코"와"진생" 이라며 보여주니 다들 놀라며 기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삼 재배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왜 ? 집 안에서는 전혀 키우지 않는 걸까요 ?

흔해서 가치가 없는걸까요 ?,아님 집에서는 키우기 어려운가 ? 화초로도 키우고, 몇십년씩 키워 후손에게 선물로 물려주고,위급하고 기력 떨어지면 젊어 심어놓은 인삼 몇뿌리 먹고 ㅋㅋㅋㅋ





모든 몸에 좋다는 약초들, 건강 식품들 집에서 간단히 키우는 방법도 연구하고, 화초들처럼 대량으로  
생산해서 화분에 담아 시중에 판매 한다면 ,잘 팔릴것 같은데.... (내 생각 입니다.)  
아래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미래 유망 사업으로.... (동참하실 분 후딱 말씀 하세요.)



들



신묘년! 새해는 이렇게 시작 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신년 인사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는 한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이 전혀 오질 않았는데 온 천지가 하얗길레 보니 와 ! 온 천지가 얼음으로 뒤덮여 얼음나라가 되었습니다.



얼음 나무.



빨간 열매도 얼음으로 포장되고...





태어나서 처음보는 정말 경이로운 모습입니다,가지 마다 이걸 얼음 막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철조망도 얼음 철조망.



전봇대며 전선줄 까지도 온통 얼음으로 한겹딱이 입혀지 모습.



집앞 잡 풀들도 온통 얼음으로....





아스팔트도 얼음 빙판,정말로 얼음 나라에 온것으로 착각아닌 현실에, 그 경이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꽂꽂 얼어붙은 대지에 따듯해진 대기에서 눈아닌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그 비가 그대로 얼어 붙은 상황인데

이런 자연 현상을 처음 봤습니다,무수히 많은 나무 가지들이 꺾였으며,전선줄이 끊어지는등 대단하더군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러시아 지역에서 가끔 일어나는 현상들 이라고 합니다.



첫 출근하는 나를 영접하는 루마니아 여인들 ?????



잠깐 들른 호텔에서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나는 얼떨결에 동양 귀빈이 되었습니다.





동양 귀빈께서 사진 한장 찍어준다니 엄청 좋아합니다,루마니아 사람들 대놓고 우아래로 훑터보며 몸매며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면 아주 감사해 합니다,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간 당장 성희롱으로 구속된다는데....  
 우리나라 여자들 참 이해가 안가는게,다른 사람들 (많은 부분 남자들)에게 이뻐 보이려고 치장하고 짙은  
 화장에 야한 웃도 입고 다니면서 조금 관심있게 쳐다보는 남자들에게 성희롱이니 뭐니 한다는게 ????



아가씨 ! 노래 잘하게 생겼는데 노래한곡 해보시지. 자기를 이쁘다고하고 노래도 잘하게 생겼다는데 ....  
조금 수줍어 하면서 음! 음! 황망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다가...우리나라에서  
불려졌던 "사의 찬미"란 노래는 원래 루마니아 전통 가요 인거 다 아시죠.





작년 11월에 불가리아에있는 라이트 하우스란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 대회에서 제 형님이 우승하여 상품으로 트로피와 일년짜리 멤버십 카드를 받고 두 내외가 기념 사진한장 찰칵 !



제 형님 조의 같은 플레이어 였다는 불가리아인과 함께,저 불가리아인 왈 ! "꼬레아 사람들은 쪼꼬만데 어떻게 그렇게 골프는 잘 치는지 모르겠다 ~~" ,저 놈이 엄청 큰겁니다,그리고 골프는 힘으로 치는게 아냐 짜샤 !



아프리카 ! 말로만 듣던 곳 이었는데 저번달에 십여일 일정으로 골재장,및 도로 건설 현황등을 둘러보고 왔다  
경제 수준은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정도,루마니아의 10여년전 하고 비슷했다.  
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며,치안도 안전하고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수도 ACCRA 에서 거의 모든 한인들이사는 TEMA 라는 항구 도시를 지나 ACOSONBO 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 유일하게 3곳의 석산이 있었다,이석산에서 나오는 자갈들이 수도근교를 다 커버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약 200~300 루배를 생산한다는데 놀라운게 자갈 가격이 루배당 20 달러하더군요 많이 구입하면 디스카운트도 해 준다고 하더군요.(석분으로 벽돌을 찍고 있었는데 석분은 루배당 12달러)



유럽에서 들여온 12년된 레미콘 믹서 트럭 -45,000 유로 (루마니아에서 절반 가격이면 구입가능함)



10여일간 돌아다녀서 유일하게 찾은 골재 채취장. 모래,자갈 가격이 루마니아나,우리나라의 두배였다.





석분으로 짚은 벽돌인데 한장에 1 ~1.2 달러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자동 벽돌기계가 생각...



모래가격이 원낙 비싼탓에 씻지 않은 흙 모래로 짚은 벽돌,거의 흙이더군요(흙50%+모래50%) 장당 1달러



수도 아크라에서 본 유일한 신형 레미콘플랜트,외국인 업체로 자체 건설용으로 사용 하고 있었는데 믹서 트럭은 물론 펌프카 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루마니아 수도근교엔 약 120 여개가 있음)





일반적인 레미콘 회사로 ,글쎄 시간당 몇 루배를 생산할수 있는지 ??? 저런곳도 몇군데 없었다.  
그러면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봤더니 3~4십명씩 둘러서 삽으로 비비고 있더군요.  
산업 현장 노동자 월급이 약 60달러 정도이니 싼 맛에 100명 200명씩 삽들고 일하더군요.



아크라 수도인데 도로가에 장비 판매처가 곳곳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장비가 그 비싸다는 미국  
케타 필러사의 장비 들이더군요,가끔 우리나라 장비도 있었는데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네요...이유는 ?



주유소는 많은 편이고 이곳은 아주 깨끗한곳이기에 찰칵, 경유값은 약 0.8달러 이고 앞으로 이나라 서쪽 바다에서 기름이 나온다면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더군요,지금보다 모든 경제등 생활이 좋아질것으로 기대들을 많이 갖고 있던데 글세요 ? 제 생각에 기름이 나온다고 해서 서민 경제 생활에까지 영향이 없을것 같은데...





메인 국도등은 이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아프리카인디....



이면 지방도로는 이정도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도로 공사를 해보겠다는 거 아이 겠습니까 !(신작로)



운송 장비가 턱 없이 부족했다,그래서 차량 렌트비나 운송료가 아주아주 비쌌다...저런트럭 태어나 처음봤음.



아크라 수도의 한복판... 우측의 저 확장 도로를 중국에서 무상으로 14킬로를 하고있었다,그리고 다른 모든



수익성 있는 이권을 골라잡아 포식하며 쟁개의 영역으로 말들겠지...그러면 우리나라 외교정책은 ?  
솔직히 외국에 나와서보니... 열심히 하시고들 있는줄로 아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위해 !  
역시 중국은 대단한 나라다,아프리카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중국인 약 10만명이 거주하고있다고함.



수도 아크라에서 제일 큰 쇼핑몰 .우리나라 큰 편의점 정도의 수준이었고 야 정말 장사 잘 되더군요 자본만 있다면 쇼핑몰사업 해야겠다는  
내 생각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구멍가게까지 돈만된다면 다하는 문어발 업체들인데 왜 이런 곳은 안들어 오는지 ? ,큰 업체에서 시장조사 나  
오는 분들이 성경의 열두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같은 사람들이 없더군요.(괜히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게 현명하  
다 ???)



한국인 사금채취 회사입니다.고생들 많이 하시더군요,노다지 사업인지라...하루에 7 ~800 g 정도 채취는 보통이라는데 하고 싶으신분 있으면 손 드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테니까요,요즘 금값이 금값이더구만...저는 왜 안하느냐고요 ? 저는 모래 자갈 채취하는 것 밖에 안 배웠거들랑요...





약 3만 5천의 도시 인구 거의 80 %정도가 저렇게 금 채취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손놀림이 보통이 아니더군요.정말로 금이 많은 나라임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저 모자 쓴 아자씨가 최고의 추출 전문가라더군요,백인인 제가 옆에가서 사진을 찍고 있어도 고개한번 안 돌리고 한톨의 금가루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모습이 과연 장인 이로세 !!!저 팀이 하루에 약 50 g 줍는대네요...



전국 어디를 가나 택시가 엄청 많더군요, 택시 신고제인 탓과 유동 인구가 많고...한국의 20~30년된 중고차는 다 저 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 냉장고,중고 브라운관 텔레비전, 우와 이장사들 엄청 잘 되더군요.가격이 놀랍습니다....  
 약 20년전 부천에서 전파사 하던 친구가 생각나는데 그 친구 이곳에와서 전파사 차리면 때돈 벌겠다...내생각.



저 분들에게 내 블로그에 사진 올린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양해 하시겠조 !,4인조 강도 사진도 아니고....  
가나 일정을 다 마치고 헤어 지기전에 자!자! "기념 사진이라도 한장 찍어 둬시다 !"





동네 어귀에서 공차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내가 동네어귀로 들어서니 다들 모여들어 신기한듯 오브라니,오브라니 ! 하면서 쫓아 오면서 나를 반겼다. (오 브라니 = 백인 )



어느곳 어느 동네를 가도 제일 먼저 아이들이 뛰어 다가와 신기한듯 가까이 하는데 무척 즐거워들 하는 모습이 참 순박하고 천진했다.....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야생 버섯을 팔기에 드렸더니 아이들이 또 내 주위로 모여들며 ....





등에 업은 아이까지 4형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정차한 차로 아이들이 달려와 코코넛을 팔더군요 ,기꺼이 팔아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사람이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 어린 아이 할것없이 상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여느 가난한 나라에서 보던 거리의 구걸하는 아이들은 전혀 보이질 않았다.





가나 사람들의 주식인데 먹어 보질 못해서.....



저 오렌지과의 과일 100개에 약 3달러 !!!



머리에 이는 것이라면 가히 올림픽 감이더군요,밀가루 빵을 튀겨서 도로가를 다니며 차량 손님들에게....



바나나과의 과일을 기름에 튀긴 것인데 꼭 우리나라 뽕튀기 사먹는 기분....



멈춰선 우리 차량안으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눈길이 ....





제가 이 칼질만 10년 이라니까요 ~~~ 한개에 0.2 달러



어시장을 들렀는데 우와 ! 이건 완전 난장판 ???? 해물가격은 엄청 싸고 즐겨 먹는 음식이라네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면 물건파는 사람들이 전부 몰려들어 차창 안의 손님들에게 각종 음식을...점심 !



자전거에 아이스 크림통을 싣고.... 특이한 것은 아이스 크림에 손잡이가 없이 봉지 끝을 뜯고 입으로 쪽쪽



빨아먹는다는 점....



바나나과의 이 과일은 숯불에 구워 먹는 것인데 과일 이름을 잊어 버렸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바나나 잎에 싸서 숯불에 구운 것인데 달달하고 그냥 먹을 만 했다,한개에 약 0.1 달러





우리나라 마 같은 뿌리인데 가나 사람들의 주식으로 찢어서 인절미 같이 만들어 먹는 다는군요....



소고기인데 숯불에 구운 것으로 조금씩 떼어 몇 조각씩 판다는 것이 놀라웠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방도 장사꾼들로.....,"거대한 상업국가 가나여 내가 간다" !

작은 아이 학교 진학 문제로 파리에 갔습니다.

미술학교 몇군데 방문 상담하고 간김에 파리 시내 및 고성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프랑스 아니 파리를 뭘 볼게 있다고.....그러나 그 볼품없는 것들을 세계의 관광지로 꾸미고 부각시켜놓은 프랑스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리 전시관 앞에서도 ,입장은 못해봄.





작은 아이가 가장 가고싶어하는 국립 대학교인데 경쟁률이 70~80 :1 이라네요.  
전 세계의 미술학도 들이 몰린다는데 시험은 내년 1월부터 이론과 실기등, 우리나라 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에펠탑 모양의 열쇠고리를 파는 요원. 2유로에 3개씩 팔고있었고 나에게는 4개를 준다기에 샀다,그리고 에펠탑 가까이조금 더 가니 5개에 2유로씩 판매하고 있었고 나는 띠잉 ~~~



철 구조물 덩어리 !,저걸 보려고 세계에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니....





저 탑위로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엄두를 못냈다..... 저 많은 인파들 줄서서 티켓 구입하는데 족히 2시간은 들것임.





나는 제 세 여자들의 돌쇠다.



포즈를 취해보라고 했더니 ~~~ 자고있소 ?



베르사유 궁전 뒤 공원 입니다 ,정말 잘 가꾸어 놓았더군요.덥고 피곤했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몽마르뜨 언덕위의 풍경들



비너스 상 앞에서 ,솔직히 나는 저 조각상이 왜 뛰어난지를 모르겠더군요...





저 멀리 모나리자 그림이, 가까이 갈수가 없네 ~~~



베르사유 궁전 내부 관람





이곳이 세느강 ,우리나라 한강이 훨씬 멋지다.



참 독특한 작품이었습니다. 저 조각품 가격을 물어보니 12,000~16,000 유로.



황동으로 만든 조각품들인데 사진도 못 찍게 하길래 내가 그냥 못알아 듣는척 다 찍었습.



파리 시내 전철 내부 ,지하철이 참 잘 되어있었고 항상 모든 곳이 만원이었다.





루마니아에 있는 개선 문 하고 똑 같은데 굳이 오리지날이라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네요.



파리에서는 최사장님네 그리고 예은이네 가족과 마지막날 식사를 나누고 헤어지기 아쉬워....





세계의 모든 인종이 다 모여 사는 곳이 파리 더군요, 흑인도 많고 아랍인, 중국인 그리고 한국 관광객도



엄청 많더군요,물가는 한국 보다는 많이,루마니아보다 조금 비싸고, 음식은 생각보다 별로 였고, 도시는 아주  
지저분하고 사람들은 전 파리인이 장사꾼 같고 등등 (제 생각입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도 가고, 자 ! 몸좀 풀어봅시다.





주위 몇 가정하고 함께 불가리아에있는 "블렉 씨 라마"라는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저 클럽 하우스 뒤편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이 골프장의 매력인것 같습니다.



영국에 있는 큰 딸이 3주간 부활절 방학으로 집에 왔길래 함께 가족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설만한 그늘같은 나무가 없는 것이 흠이 더군요.



사진 찍기를 실어하는 큰아이는 마지못해...,미술을 전공하는 작은 아이는 "아빠! 잘 찍어 보세요"  
내년이면 작은 아이도 집을 떠나니 기회가 주워졌을때 가족사진 한장 이라도 남기려는 아줌마...





이곳은 루마니아 북쪽 카르파치 산맥에 자리잡은 "콤블룽"이란 지역입니다.

루마니아는 역시 봄이 가장 아름답다운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제 능력으로는 표현할수가 없을정도...



준설선에서 직접 선별기로 원석을 투입하는 시공법을 시험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시운전을 성공 적으로 잘 마무리 했습니다.



펌핑 압력이 너무 셌는지 ,아님 큰돌에 호스가 막혔는지 배사관이 터졌는데 우와 ! 멋있구만 !!!





"토니차"라는 루마니아 미술 이론학교의 학생 책상인데 빈 공간이 없을만큼 낚서 투성....,옛날 학창시절이 생각나는데 우리때는 컷닝 한다고 책상에 일체 낚서할수 없었는데....



화장실을 갖는데 우와 ! 이건 해도 너무했다 싶데요,아무리 예비 예술가들이고,미술을 전공하는 아이들

이라고 하지만 ,(학부모 면담을 한다가에 작은아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제 마음이 영 개운치 안더군요.  
이런 무질서함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수 있을까 ??? )





한국의 비닐하우스를 이곳 루마니아 엑스포에 전시하고 비닐 하우스 자재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루마니아 흑해근방에있는 머드-팩으로 유명한 "때끼르끼오르"란 머드로 뼈,신경계통,피부염등을 치료하는 전문 의료 기관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7 ~10일 코스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약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 커미션이 필요.....



우리나라 가을 단풍과는 비교도 할수 없지만 그래도 가을이라 이곳도 산들이 붉우죽죽한 옷을 입었네요....





부카레스트 아멘 한인교회 헵시바 찬양단. 총 교인 약 60명 정도 되지만 뽕뽕합니다.



시내에서도 얼마나들 달리는지 아침 출근시간에 승용차 한대가 원맨쇼를 했습니다. 무식한 놈들....



작은 아이가 인터내셔널 스쿨을 10학년까지 마치고 "토니차"라는 루마니아 최고의 미술 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오늘은 개학하는 날인데 동양 아이는 우리 다행이 혼자더군요.....





이곳은 영국의 맨체스터 입니다,큰아이 기숙사 건물.





맨체스터에는 버스가 전부 이층버스,그리고 운전대가 차량의 오른쪽에 있어서 차선도 우측차선제라 정신이 없더군요,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중국인들과 중동 사람들이 엄청 나더군요,



맨체스터 시내의 교통 경찰관 .





시내 한 복판에 차이나타운 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맨체스터 대학 본관 앞에서 사진한장 찍었습니다.





맨체스터 한인교회에서 큰딸과 첫 예배를 ,딸아이는 첫날부터 이곳에서도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교회도 총교인이 약 80명정도로 맨체스터에 3곳의 한인 교회가 있더군요.



큰아이 기숙사에서 주는 아침식단 입니다,외부인은 4파운드의 돈을 내고 사먹어야 합니다.



딸아이가 3년간 먹어야할 식단인데 음식은 양호한편 이네요....



맨체스터 시내의 유명한 레스토랑에 아이와 함께가서 시킨 생선요리인데 아무래도 가격에비해 양이 작아보이죠. 와인 한잔과 곁들여 26 파운드 짜리 .....



딸아이는 피쉬앤 칩, 8 파운드인데 맛이 보기보다는 훌륭했습니다.



이곳의 택시,외관이 이쁘게 생긴것처럼 기사들도 아주 친절하더군요,루마니아보다는 백배더 친절....



딸아이 기숙사 창가로 펼쳐진 동네 풍경.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는데 많이 낡은 집들로 허술하고 난방등은 아주 열악한 주택이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달린 집의 한달 임대료는 약 600~ 800 파운드 정도로 루마니아보다도 저렴하더군요.



큰아이가 앞으로 공부할 맨체스터대학 회계학과 건물로 여기 저기 둘러보니 왠지 마음이 조금은 놓이더군요.

세계의 아이들과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경쟁하며 한 사회인으로 세상에 진출할 아이를 떠올리며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대학 시절을 유익하고 보람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즐겁게 보내라고 위로도  
하고 아이와 모처럼긴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뭘 봐 임~마 , 왜 ? , 내가 쯤개 이상하게 생겼냐 ?





"Blea Lac" 에서 Sibiu , Brasov 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해발 2555 m 의 천지가 있는 곳으로 우리 한국사람들이 백두산 천지와 같다는 곳입니다.

이제 몇일정도 있으면 눈이 내릴것이고 진입이 통제 되는 곳입니다.

루마니아 주요 관광지중에 빼놓을수없는 한곳인데 올수있는 기간이 약 6월달 ~8 월달정도라 ....

한국에서 친구가 방문하여 4년만에 와봤는데 역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작 아름다운 천지 모습은 올릴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못올리고 친구와 함께한 사진만 올립니다.(죄송)



천지를 기점으로 주위 70 km이내에 주유소가 없다는 사실,우리도 할수없이 가솔린 5 리터를 약 15유로주고 불법 판매 업자에게 사정해가며 구입하여 내려왔습니다.





제 형님이 드디어 루마니아에 최초로 한국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첫 작물이 수확기에 다가 왔습니다.



달랑무도 심고, 단무지무와 통통한 청무도 심었습니다. 루마니아에온지 13년만에 이곳에서 달랑무 김치를 먹어보다니.....,생각보다도 우리 한국분들 달랑무 김치를 많이 그리워 했더군요.





일단 시범으로 하우스 10동을 지어서 여러 작물을 심어보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이곳 루마니아에서 판매되는 야채는 거의 모두가 터키나,이태리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늘 딱딱한 골재장만 다니다가 요즘은 형내 하우스에와서 오이도 따먹고 양상추도 뜯어 먹고, 따고 뜯어다가 루마니아에서는 한국 분들도 갖



다주며 내가 인심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야채 판매 루트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매 시장등을 다니며 이곳 시장 유통 과정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의 시장 바닥도 만만치가 안더군요, 달고 달은 인간들,드세고 약아빠진 상객들 등등.....

부카레스트에서 제일 크다는 도매시장인데 우리나라 가락동하고는 비교가 안되지요.



"부저우"라는 수도에서 약 120 km 떨어진 지방 도시에서 피망을 팔려고온 "조르제 부부"

저 차안에서 저 피망을 다 팔때까지 먹고 자가며 지내는데 오늘이 이틀째라며 내일까지는 다 팔것으로.....

앞으로는 우리 물건을 떼어다가 팔아보라고 했더니 웬 꼬래안이 웬 야채를 심고 판매하냐며 고개를 기우뚱....





"메론 장사와,상추 장사의 기념사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밤을 꼬박새며 상추를 팔며 루마니아 도매 시장의 생리도 보고 장사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도 많이 만들었다.



"짚시 부부의 사랑" 아름답다고 해야하나 , 안되었다고 해야하나 ?....  
Pliesti 란 도시의 외곽 철로변을 지나는데 한 몸이 불편한듯한 남자를 아내인듯한 여자가 조그만 양동이에 물을받아다가 몸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 지나면서 사진을 찍으며 내내 마음이 편칠 않았습니다.



주위에 살림 도구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저곳이 저 부부의 생활 터전인듯 싶네요.



약 3~4일후 다시 저곳으로 지나가며 얼핏 보았는데 저 남자는 누워있고 여자는 그 주위에서 무엇인가 하더군요, 아마도 몸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된듯 생각이 드네요. 루마니아에는 약 300만의 짐시중 저렇게



집없이 떠도는 짐시들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으이구 ~~ 좀 천천히 다니지 ㅜㅜㅜ, 루마니아 운전자들 화물차나 승용차 다들 살벌합니다.  
나도 운전하면 조금 달리는 편인데 루마니아 운전자들 장난이 아닙니다.  
젊은 남자들은 물론 여자나 노인들도 조금 뚫린 도로에서는 시속 약 200 km 정도는 우습게들 달립니다.  
저는 보통 180km정도로 달리는데 뒤에서 번쩍번쩍 라이트 켜대며,그 즉시 안 비키면 반대 차선으로 추월  
하며 차창 밖으로 손가락 내밀며 빠악 ~ 규우 살벌하게 욕하면서 휙 추월해갑니다.  
시내에서 신호정차중 파란 주행등으로 바뀌면 그 즉시 출발 못하면 뒤에서 뺑뺑 거리며 욕해대며 곧  
잡아먹을듯 지랄들 하는데 한두시간 운전하고 들어오면 꼭 무슨 전쟁 한바탕 치르고 온듯 하니.....



COLOSO 란 회사에 판매한 준설선 - 약 일년 되어가는데 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조 한지 약 50년된 독일 하베르만사의 준설선. 우리 한국 장비로 바꾸라고 영업하고 있는데 건설 경기가 어렵다보니 쉽지 않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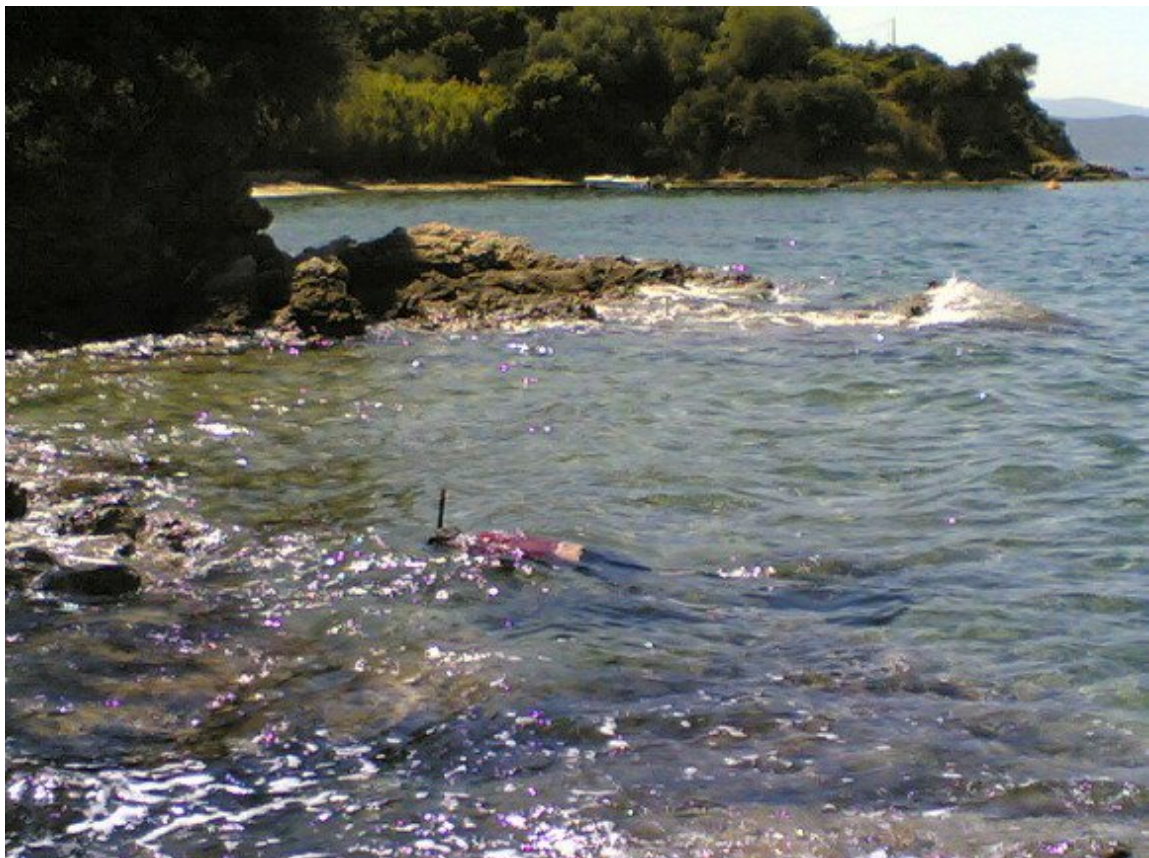




"Filiass"란 지역으로 수도에서 약 400 km 떨어진 지역에 우리 선별기를 임대해 주고 시험 운행 했습니다.  
루마니아도 건설 경기가 아주 अच्छ아서 장비 판매와 구매가 어렵다보니 임대 문의가 많아 우리 회사도 일부  
임대 업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선별기 임대한 회사의 사장과 이사.



그리스의 한 바다가 - 소라,해삼,성게,전복 ,석굴 등 우와 천지에 널려있습니다.(물 안경쓰고 주우면 됩니다)  
저번달에 한국에서온 손님들과 함께 그리스에 갔는데 역시 바다는 에게해.....





5년 만에 와보는 아테네 ,여기 올때마다 얼마나 더운지 .....세계 경기가 어렵다고해도 이곳은 관광객들로...



루마니아 최고의 관광지인 브라쇼브 구시가지의 스포츠클라방에 있는 "흑색 교회" 항상 광장에서 옆 모습만 카메라에 담을수 있었는데 비로서 전체 모습을 담을수있는 곳을 찾았다.





"요새 성당 (prejmer)" 내부 전경 .- 브라쇼브에서 스펀틀 게오르게니 방향으로 약 30 km 정도에있는 터키군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요새로 축조된성.한국 대학 연합회에서오신 손님들과 처음 방문한 곳인데 문화적으로나 유물적 차원에서 꼭 가보실만한 곳으로 루마니아에 오신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곳 입니다.





요새성당 외부성곽 모습.



시기쇼아라 시계종탑 위에서 내려다본 시가지 전경, 세계 중세도시 문화재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시기쇼아라 시계종탑 내에 있는 1856~1915년의 루마니아 강수량 도표.





시기쇼아라 성에는 14개의 종탑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인 시계종탑 모습.



"시비우"란 도시의 외곽 성터,작년에 세계의 중세 도시로 지정된 도시로 루마니아에는 세곳의 중세 도시로 지정된 문화재 유산이 있는데,그 보존 상태가 완벽하다고 정평이 나있는데,개인적인 내 생각엔 보존을 잘



하려고 했던것이 아니라 가난하여 돈이 없다보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팽개쳐 두다보니 오늘날 .....



저곳은 "호레주 수도원" 처음 가본 곳인데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더군요,그리고 보니 루마니아 전국을 골목길 까지 잘안다고 생각했던 저인데 이렇게 제가 알지 못했던 숨은 명소들이 제법 많았다.





호레주 수도원 입구.



루마니아에는 열차 노선이 공산주의시절 주요 교통 수단이었기에 전국을 잇는 열차 노선이 잘 되어있다. 급행열차의 일등칸 좌석배열 모습.수도에서 500 km 떨어진 클루주에서 수도 부카레스트까지 요금은 약 40 유로정도,밤에는 유라시아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침대칸 요금은 약 55유로 정도 입니다. 물론 현지인들은 조금 저렴한 이등칸과 삼등칸등 합석표로 주로 통행하기에 일등칸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부카레스트에만 유일하게 있는 지하철입니다.

4개 노선이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지하철이 일찍 설치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우리나라 지하철하곤 비교가 안될만큼 형편 없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교통 수단입니다, 가격도 2회 탑승권이 약 0.5유로 입니다.





출장 가다가 하도 도란것이 노란물감을 흰색 도화지에 통째로 업어 부워놓은것 같아 사진이나 한방....  
유채꽃인데 이사진은 봄이었고 요즘은 온 들판이 해바라기꽃으로 완전히 노랗다 못해.....  
그짓말 조금보태서 차로 20분정도 달려야 그 끝이 보일랑 말랑....



팬 플룻 ? 이곳 루마니아에 세계적인 펜플룻 연주자인 게오르게 잔피르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펜플룻 제작자인 프레다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걸어서 세계속으로"라는 프로의 코디를 하면서 프레다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기념으로 구입한 겁니다.  
특pecially 저에게 600 유로 !!! 음악이나 악기를 몰라서 그런지 가격이 너무 비싼것 같습니다(내생각)



시골 길을 가다보면 집앞에 의자를 만들어놓고 한가한 시간이면 다들 나와서 이야기 꽃을 피우는게 루마니아의 전통 풍습,아니 정서같더군요.이사람들 이야기 하는것 엄청 좋아합니다. 공산당들.....





세분의 할머니들은 친구분들 ? 머리에 바람이 들어간다는 풍습으로 여름에도 여인들은 머리에....



길을 가다가 사진을 찍으니 다들 처음보는듯 동양인을 신기한듯 쳐다보네요.





내가 본 루마니아 마을 중 가장 아름다운 마을입니다,설래이는 마음으로 바라본 마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언제고 꼭 아름다운 사람하고 다시오리라고 짐해두고 돌아왔습니다.



짚시들의 집입니다,흙벽돌등을 찍어서 팔거나 구걸등도 하고 흠치기도 하고 아무곳이나 정착하면 그곳이



그들의 집이 되는데 얼마 전부터 이곳 주변에 짐시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더군요.



어느곳에서나 볼수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 입니다.

"인위적으로 손이 닿지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이 살아있는 루마니아 ! 이곳 루마니아로 당신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 곳을 통과하면 코소보다" 마케도냐와 알바니아에서 만난 사람들이 코소보쪽이 건설 공사를 많이  
해야한다며,수요처가 많을 것이라고 하도 추천들 하기에 마케도냐 남쪽지방을 포기하고 3일 예정으로  
코소보로 입성하는데 처음 국경부터 ??? 코소보에 들어오려면 따로 차량 보험을 들어야 한답니다 - 68 유로 .





국경을 통과해 수도 쪽으로 들어서니 평온해 보이는 시골 마을들,마케도냐나 알바니아와 비슷,아니 똑같다.



마케도냐 국경에서 코소보 수도까지 약 60 km 의 도로 주변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었다,저 곳은 모텔 겸 레스토랑인데 저런 건물들이 널려있을 정도며 오히려 마케도냐나 알바니아보다 더 발전 된것 같았다.



수도 Pristina가 가까워오니 도로도 양호했고 이정표도 보이네 ....



고개를 넘어서니 수도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웬 눈이 앞을 분간할수 없을만큼 쏟아지네요.  
처음 와보는 나라 수도에 이렇게 입성하려니 기분이 쏘아 심난했습.





예상했던 것하고 너무다른 시내의 풍경들,사람들의 인상도 밝았고 차려입은 옷 매무새들도 발칸쪽에서는 제일 세련되어 있었으며 도시가 살아 북적대고 있었다.



금방 눈이 그쳤고, 바람은 차가웠다 .특히 여자들이 옷에 신경을 많이들 쓰고 있음을 느꼈다.





현지화를 교환한다며 은행에 들어간 지부장은 함흥차사.... 알고보니 이곳은 따로 코소보돈이 없고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발칸속의 유럽이다. 물가는 루마니아보다는 싼 편인데 ,식사한끼 약 7유로....



이곳이 중앙 광장. ?





"평화 유지군의 본부건물"앞 온 수도가 군인들판이다,차량도 세계 최고의수준,우리나라 쏘렌토도 보였다.

온 도시에 군부대와 군인 차량으로 북적였으며 그로인해 경제가 활발히 유지되고 있었다,

삼성 호텔 싱글룸이 하루밤 180 유로정도 였으며 시내쪽은 방이 없어서 외곽으로 나가서 묵었으니 도대체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 앞에 우리는 어리둥절했다.



"수도근교의 골재 채취장" - 어이구 ..., 지부장 ! 그놈들 거 살 능력 되겠어 ?  
 수도와는 달리 지방쪽은 가난하기 그지 없었다. 장비들도 낡을대로 낡았는데 형편을 보니 음.....



젊은 친구가 현장 소장인데 아주 친절했으며 ,언어는 알바니아어를 사용하는 알바니아 사람들이다.





코소보 수도 근교의 시골마을 전경.



시골 마을의 골목길을 지나다 보니 우리 시골 담벼락하고 같은게 정겨웠다.





마을 입구의 점빵. 이제 곧 아들에게 이 사업을 물려주려고 한단다. "아들 - 선친의 사업수단을 전수중임"



"코소보 수도의 전경" 걸어서 1시간이면 다 돌아볼수 있음.





봉천동 산동네 ?



저곳은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국경(전시상황 같은 분위기로 군인들의 철통같은 경계대세를 갖추고 있음)  
코소보에서 세르비아 지방도시인 "니스"를 통해 루마니아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어느나라 어느곳에서든



코소보를 거쳐서는 세르비아로 들어갈수 없게 되어 있었다,그래서 할수없이 다시 차를 돌려 마케도냐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이태리에서 들여왔다는 신형 장비를 갖춘 코소보 근교 골재 채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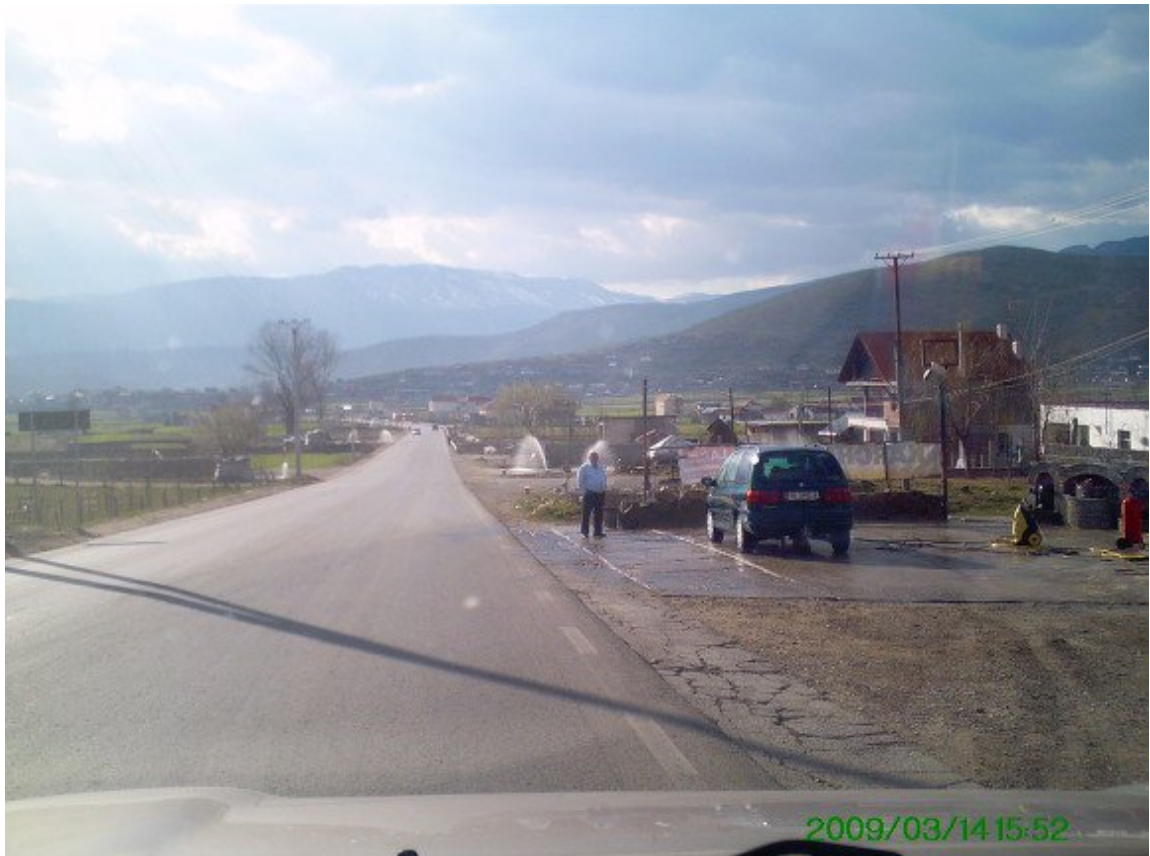


"이동식 크락샤" 낚은 장비였지만 관리를 잘 하고들 있었다.



알바니아 ! 하면 떠오르는 것중 하나인 "벙커" -2차 대전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방어용 벙커로  
알바니아 어느곳,어느 산간 벽촌 할것없이 온통 이 벙커들을 볼수있다,한 가정에 벙커 한개씩 소유했고  
누가 더 견고하게 잘만드느냐를 경쟁하고 포상도 했다더군요.  
지금은 온 천지에 동내 구석구석 늘어져있는 벙커로인해 국가에서 골치를 알고있답니다.  
저 벙커에 들어진 콘크리트양이면 전 알바니아 도로를 전부 포장하고도 남을만큼의 양이라니.....  
아 ! 지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냐고 물으니, 그냥 비어있고,또는 노천 화장실,데이트장소 등등 이랍니다.





알바니아하면 떠오르는 또 한가지는 "노천 세차장"입니다.

도로변에 바닥만 약간 시멘트 깔고 고압 세척기 한대놓고 세차장 영업을 합니다, 세차 가격은 승용차 내외부 2 ~4유로, 외국인은 조금더 비쌀것임. 이곳은 마케도냐에서 알바니아로 막 들어서는 알바니아 초입인데 줄잡아 약 50여개의 노천 세차장이 즐비해있다, 물론 전국 어디를 가든 세차장(노천)은 엄청 많다.



"두분의 세차장 사장님"들, 50:50의 지분을 소유한 동업관계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어서 사업 잘되냐고 서툴게 물어보니 그저그렇다고 하면서 내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데 미안하게도 마케도냐 국경을 넘어서면서 세차를 해서.....





저게 당나귀야 ? 쪼랑말이야 !,아니 노새라는 건가 ? 잘 모르겠는데 저 아이가 타고도 다니고....



알바니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점심 식사대접을 하고 묵었던 숙소 앞에서,오른쪽 끝 내외분이 내 친구분인  
김종대 사장님과 사모님.알바니아에는 총 6분의 의료 선교사분들과 비지니스 선교를하는 친구분이 있다.



앗 ! 삼륜차 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있었는데,연탄배달 하던 그 차들이 이곳에 ....  
영업용 용달업을 주로 하는 차들로 아주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별및 레미콘 회사로 정문에 알바니아 국기를 항시 게양하고 있는데,분위기가 ....





수도 근교에 있는 규모가 큰 회사로 레미콘,아스콘 설비까지 갖추었는데 약 30년된 아스콘기계라며 용량이 큰 최신 기계로 바꾸고 싶은데 요즘 은행 대출등 경기가 어려워 좀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고 하더군요.  
그 먼 코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곳까지 기계를 팔려고 왔느냐고 ?????



알바니아에서 코소보까지 고속도로가 건설중에 있다기에 그 현장을 찾아 와보니,주위에 천해의 원자재들이 널려 있는데 이미 도로 건설은 약 90 %정도 완료된 상태였고 마무리 작업중에 있는데 자금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더군요, 야 ! 이돌들 크랴사 들여와서 깨면은 다 돈인데.....



알바니아 수도인" 티라나"의 한 복판 광장인데 바닥은 누더기요,교통상황은 전부 지 맘대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갈길을 못잡니다,사람도 막 지나가고 자전거,오토바이,차선도 없고....  
그러나 그 속에 질서가 있는듯 합니다, 벤츠가 가장 많은 나라,왜 그런지 물어보니 길이 너무 나빠서 벤츠 아니면 견디질 못한다더군요,그래서 총 차량의 약 70%가 벤츠차로 벤츠 전시회 하는줄로 착각 가능.





알바니아 전통 골재장의 선별기 모습.



예전 국가 소유의 골재장으로 저 어마어마한 시설 규모로 보아선 일일 3000 루배정도 ?  
지금은 폐쇄된 상태.





알바니아에서 보는 한국 상표, 저것이 국가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

기업을 죽이는 정치로 정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동방의 저기 어느나라 !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있었겠지만 그 옛날의 대우가 건재했다면 동유럽과 발칸의 역사를 다시 쓰여졌을 것...





수도에서 제 2의 항구도시인 두르셀 로 나가는 준 고속도로.

2년만에 왔는데 너무많이 변했더군요.그러나 아직도 길길은 멀어 보이더군요,제 기획도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대형 농기구 판매장,센터도 생기고...



아드리아해역의 바닷가로 저 넘어는 이탈리아....

그리스의 에게해 보다는 못했지만 깨끗했고, 이곳도 이젠 해변 관광지로 탈바꿈을 하기 시작했더군요.



"차렷" 도로가에서 소형 삼륜차를 놓고 집에서 만들어온 빵을 팔고있는 아저씨!

생전 처음본다는 동양인이 서투른 알바니아어 인사를 하더니 사진찍는다며 차렷하니 순진한 양반 "옛씨".

사진 찍어서 즐거냐고 물으길래 다음에 알바니아에 올때 가져온다고 했습니다(메일은 없을테고)





지방 도시의 골재장. 태어나서 동양인 처음이라며,TV에서 나같은사람 봤다고 하더군요.  
저 오른쪽 친구는 영어를 조금 했는데 저 회사에서 제일 잘하는,아니 유일하게 영어를 아는 사람임.



시골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부끄러워서인지 말 대꾸도,쳐다도 안보고 지들끼리 종알종알.....



한국 마피아와,알바니아 골재장 마피아 ?





마케도냐 국경을 지나 첫번째 도시인 "발란카" 이곳에서 첫날밤을 묵었는데 호텔은 한곳으로 일인당 15유로, 난방이 안되어 방마다 전기난로 를 갖다주는데.....,아침에는 더운 물이 안나와 찬물로 씻어야했다~~~~~ 그래도 호텔에서 주는 아침을 먹고 이도시에 있는 위의 골재장을 찾아 첫 미팅을 갖었다.



이 골재장 사장님과 영어 통역으로 부른 아들,직업이 변호사라더군요.

골재장 장비들이 다 낡아서 장비를 바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곳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더군요.

3~4개월후 크랙샤와 아스팔트 플렌트 구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운을 남기더군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그런데로 다닐만 하더군요,인구 200만의 작은 나라로 현 경제실정으로 보면 중앙도로는 양호한편 이었고 지방도로는 거의 "신장로"더군요. 저 버스는 번호판도 없이.....



"KUMANOVO"란 도시에 있는 골재장의 "골재가격표", 1 유로/60 데나라 로 모래,콩자갈 ,자갈,큰자갈 등등





"고속도로 톨게이트". 50,30,30,20 데나랏 4군데를 내고 수도로 입성, 짜증나더군요.



수도인 "스코페" 광장 ,2년전에 들렸던 곳인데 새삼 새롭게 보여지더군요.



"테토버"란 제2의 마케도냐 도시에서 골재장을 하고 있는 사장님과 역시 통역으로 부른 사위와함께.



마케도나 전통 레스토랑에서 응성한 저녁 대접을 받았습니다.



함께간 친구와 박 지부장 ,이들은 이쪽 나라들이 첫 나들이라 촌놈들같이 둘래둘래 아~야,우~우 ㅋㅋㅋ...



" 테토보"시의외각에 있는 호텔,가격은 50유로 로 깨끗했다, 시내 중앙에 있는 호텔은 낡고 구식인데 하루밤에

160유로 하더군요,이런 수준의 나라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 호텔가격 ????



수도 근교에있는 회사로 꽤 규모가 큰 레미콘시설까지 갖춘 회사로 사진 뒷배경에 펼쳐진 돌산을 구입했으며 이곳에 크랙샤를 들여와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더군요.

알바니아계로 1974년에 마케도냐에 들어왔다더군요,어제 그리스에서 돌아온 사장과 관리이사와 함께....





저 멋진 아가씨는 저 회사의 변호사로 통역과 장비 구입 조건등을 협의하기위해 나와서 약 3시간 가량의 협의를 마치고 호텔앞에서 기념사진,저 회사에서 식사비,호텔비 및 시내로가서 술대접까지....  
너무 미안할만큼 대접을 받았다,마케도냐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친절했다.





현지 레스토랑의 웅성한 음식보다도 호텔방에서 버너에한 김치찌게와 흰 쌀밥이 우리를 더 흡족게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아껴두었던 팩 소주도 가져와서 쭈~욱 한잔.....거의 허천나게들 먹더구만....



마케도냐 남쪽의 고스티보라는 도시에서 3일째 밤을 보낸 힐튼 호텔인데 싸고 깨끗했다. 방 두개 65유로





고스티보 시가지 모습,작은 도시로 거의 무슬람의 도시였다,한국인 아니 동양인을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로 가는 곳마다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어느나라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 우리는 연신 꼬래아 ! 꼬래아 몰라 ?,가우뚱하는 사람들에게 이자식들봐라 꼬래아를 몰라 ? 거의 말이 안통했는데 개중에 젊은이들은 조금씩 영어를 하더군요. 제법 영어를 하더군요.



규모가 큰 석산인데 온통 산을 벌집을 만들어 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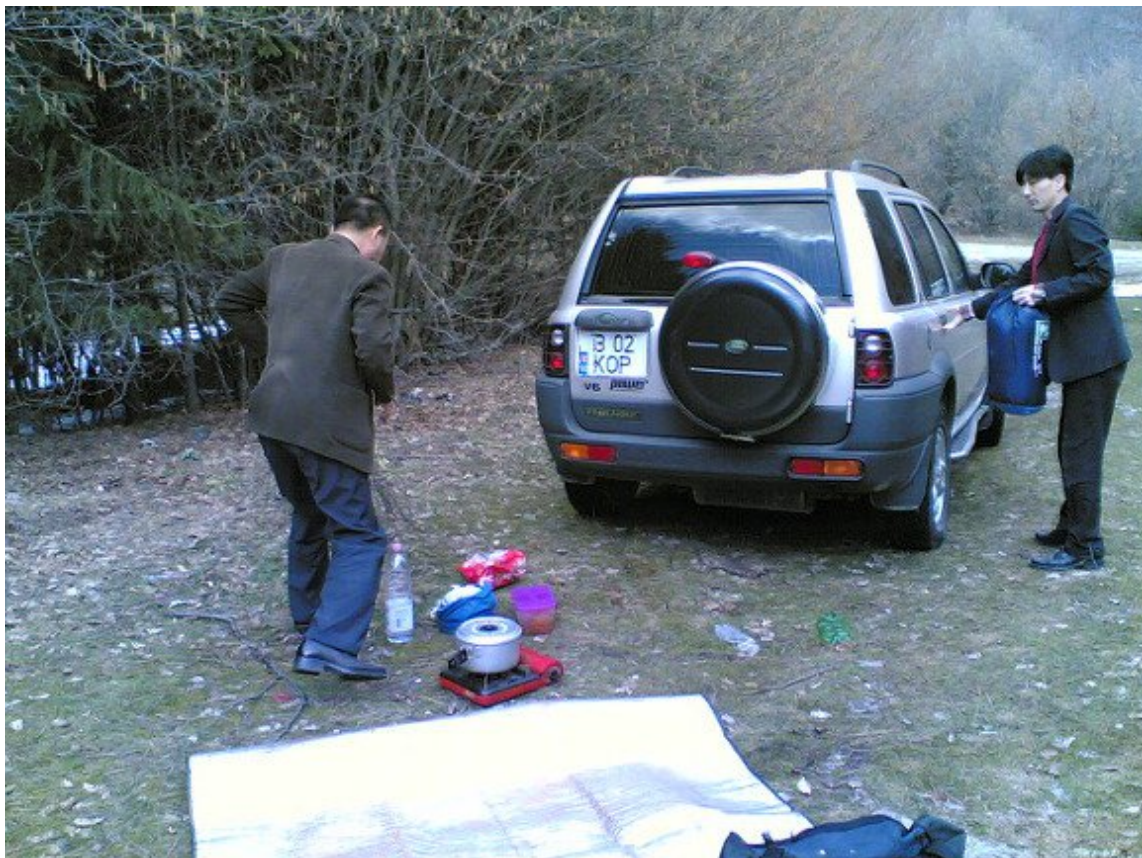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의 장비 배열들.... 50년전의 설비 시스템이라더군요,산 비탈을 이용해서 장비 및 콘베아 시설을 갖춰있는데,실용적인것 같기도하고 ????



멀리 눈이 덮힌 설산등 ,마케도냐의 지방도시 전경.





오늘 점심은 가지고온 라면으로,라면 10개 가져왔는데 아껴먹자 !



마케도냐의 바다만큼 큰 호수를 뒤로하고... ,이제 이곳만 돌아 넘으면 알바니아다,3일간의 마케도냐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절반쯤 눈에덮인 산아래로 끝이 안보이는 호수가 펼쳐진게 장관이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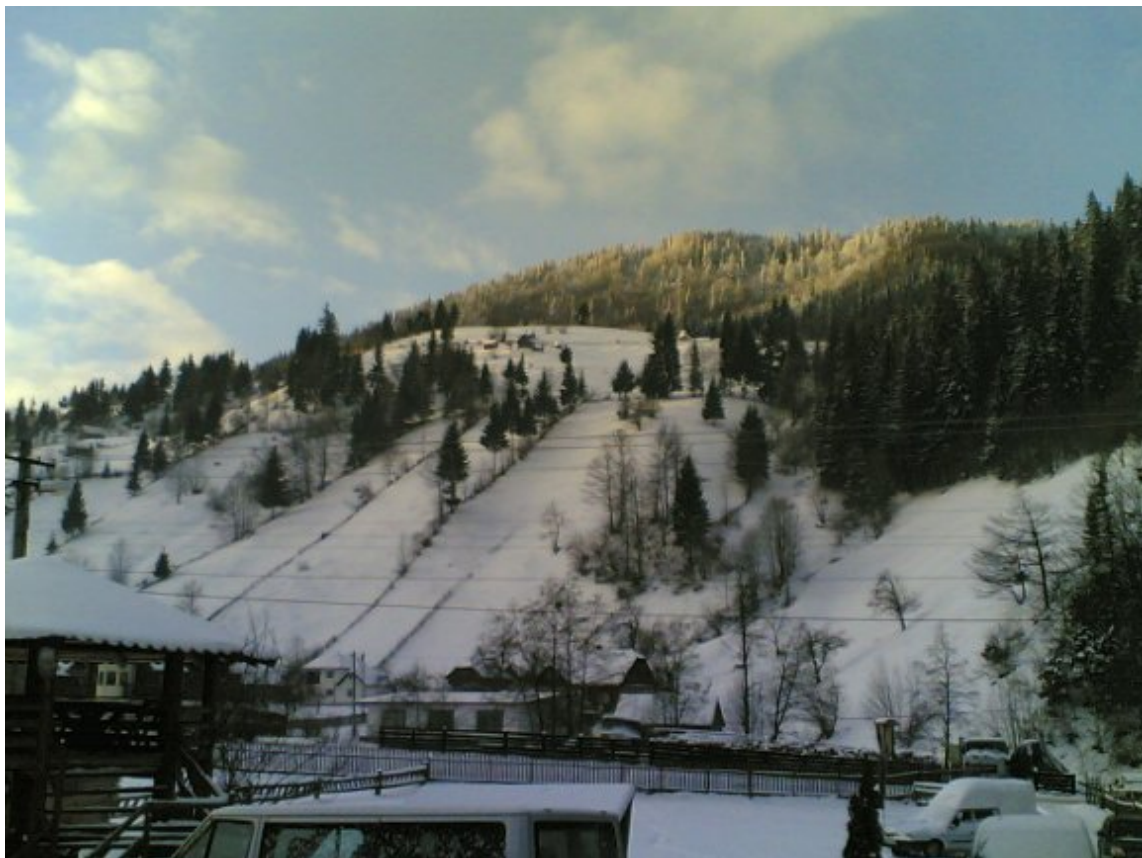


왜 똥씹은 얼굴로 ???





12.24 ~26 일까지 모에추란 지역에서 겨울 수련회를 갖었습니다. 우리가 묵었던 숙소의 전경



부카레스트 아멘교회 전 교인들.일정을 마치고 기념사진 한장찍고 !! 자자 포즈를 취하세요 ~





우리교회 여선교회원들.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여선교에서 해준 너무 맛있었던 음식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드라큘라 성이 눈이 내리니 더욱 음산해 보입니다,웬 차들이 이렇게 많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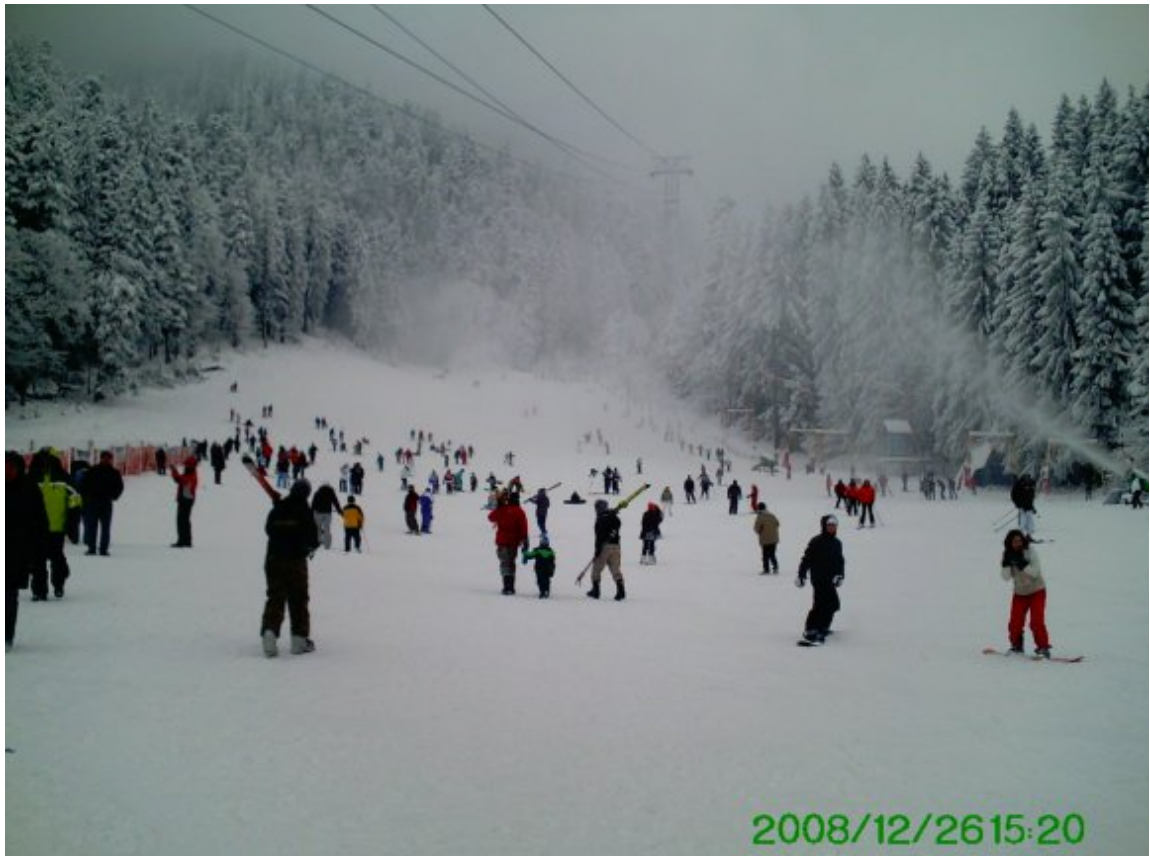


할렐루야 주를찬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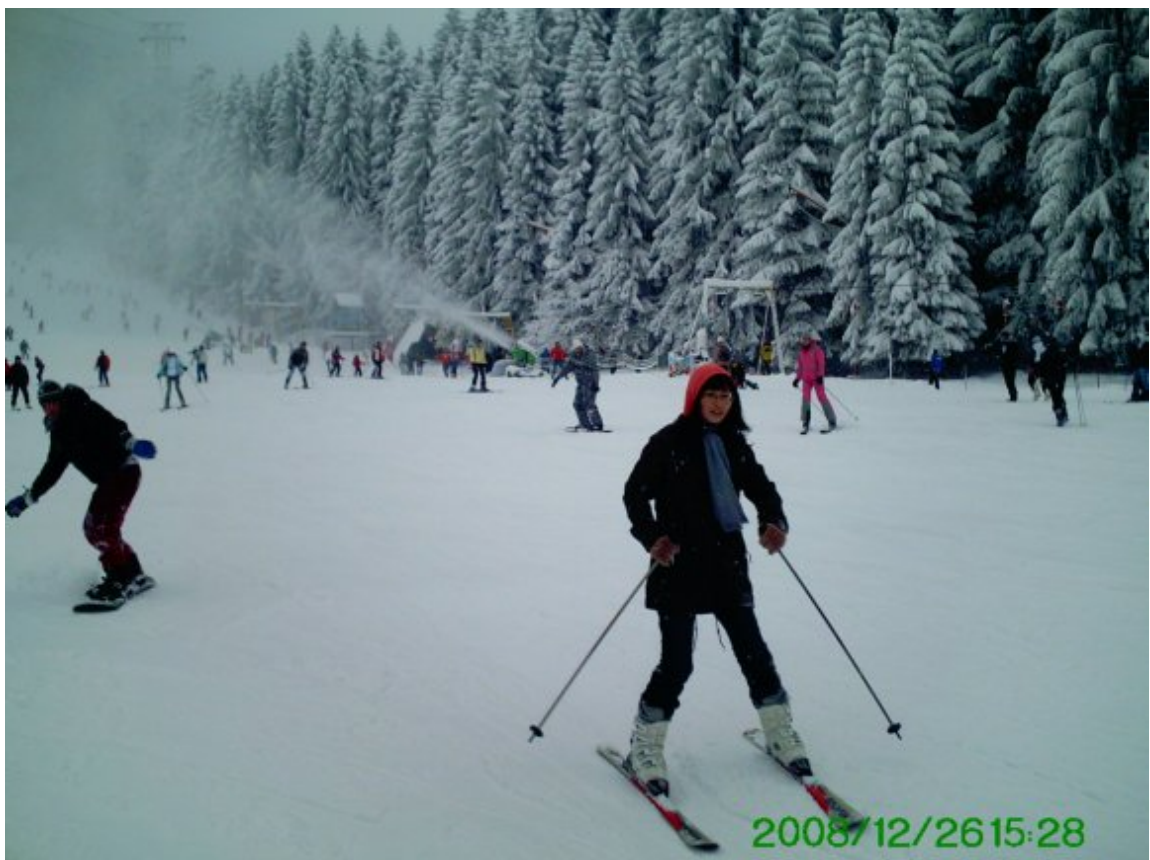


돌아오는 길에 뽀이아나 브라쇼브 스키장에 들러.....,이곳은 눈 썰매장인데 우와 ! 사람들 많쿠만...





이곳은 초보자 코스 스키장입니다.



큰아이가 이젠 제법 스키를 탑니다,예전에는 눈 위에서 서지도 못할만큼 눈을 두려워 했는데...



작은 아이는 어려서부터 눈을 좋아하고 스키도 잘 탔죠.



내 주머니를 훔치는 세여자. 아빠 !오늘도 좀 쓰셔야 겠네요 , ㅋㅋㅋ





설경속의 카르파치 산맥을 넘어 부카레스트로...





이곳은 알프스 보다는 아름답다는 몰도바 지방에서 트란실바니아 지방으로 넘어가는 카르파치 산맥.  
정말 하루쯤 묵었다 가고픈 곳입니다,멋진 사람과 이런 곳에서 세상만사 다잊고 자연속으로....  
하르키타 지방의 게오르게니라는 곳으로 장비판매 계약을 하러 가는중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우리 장비가 사용될 골재현황을 보니,토피도 거의없이 완전히 다 모래자갈이네.  
저 사장은 헝가리게 루마니아인으로 내년에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제품을 납품하기위해 우리 장비를 구입....



저 정도면 모래 30 %,자갈 60%,폐자갈 10 % 우와 원석이 최 상품이더군요.골재장을 하다보니 원석이 좋은곳을 보면 왜 그리 탐나는지,이런 곳에서 골재장을하면 돈을 수익 벌텐데...



아주 오랫동안에 클루주에있는 우리회사 지부에 들러보고 새롭게 눈에띄는 태국기가 있어 사진한장,  
수고한 직원들과 회식을하고 보너스도 두둑히주고,올 연말에 장사를 잘 했거든요.



경제가 어렵다는 말들은 루마니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거리에 장식해놓은 추리들하며.....





가진 자들은 돈이 넘쳐나서 흘리고 다니고, 없는 자들은 더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냐는 식이니....



평안해 보이시죠 ? 지금 조금은 어려운 시기 이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기축년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을 보려고 방한하여 목동 타워 펠리스 건축 현장을 답사하고 절반정도 낚이 나간 상태에서  
국보급 보물(현물의 1/2축소)을 선물로받은 루마니아에서 온" 세르반 가브리엘"(M4 그룹 부사장)



감사합니다.



루마니아는 국민의 87%가 그리스 정교인의 나라다, 한국의 조용한 산사를 찾아,아니 한국의 문화를 찾아...





어라 !어깨에 손까지 살짝 올리고.... 마피아 ? ,어디 소녀가 겁나서 사진 찍었냐 !



목동 타워 펠리스 입니다. 정말 멋진 건물이더군요,이 불황에도 100 % 완전 분양이라니.....맨위 헬기장에서는 서울이 다 내려다 보이더군요.



부처님 앞에서도 한장 찍읍시다.



타워 펠리스 헬기장에서 서울 전경을 배경으로...





하도 기가막혀서 ~ 루마니아는 개도 낚시를 즐깁니다,루마니아 사람들 정말 낚시 좋아들 하더군요,  
수도 근교는 거의가 유료 낚시장인데 일인 입장료는 25,000 ~ 60,000 원 정도 합니다.



닭갈비 집입니다,루마니아 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닭갈비,감자탕,해물탕,찜,소주 등등



Coloso 사장 코스텔은 젓가락질을 제법 익혔습니다,가운데 국제 변호사인 니쳐씨는 회도 제법 잘먹습니다.

저와 루마니아에서 10년을 넘게 함께하고 있으니,그동안 한국에대해 많이 동경해왔는데 실제로 와서 보곤 많이 놀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어느 정도는 자기네 나라보다 잘사는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 일줄이야 도로를 보더니 독일보다도 오히려 잘 되어있다고들 하더군요,깨끗하고 친절하고,춤춰가며 절절절.....





야 !이건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할수가 없다,이 아이스크림 입에서 살살 녹는다.

니꾸 왈~이 하드도 정말 맛있다.

코스텔 - 나도 먹으라고할때 한개 집을걸.....,괜히 빠다가 물 한병 들고왔는데...



밤을 보더니 웬 축제기간이냐고 묻더군요,얼마나 화려한지 !저곳은 강원도 시골 원주인데.....



남산을 걸어서 올라갔으니 코스텔은 저 6개월된 배를 안고 ...



리 ! 나 도저히 못가겠다. 햅햅~~~ 저 배를 보니 조금 미안하더군요,걸어서 남산 타워까지 10분이면 된다는 관리인 말만듣고 갔는데 약 30



분 이상 걸리더군요.



남산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



COLOSO 회사의 사장과 현장 소장 ( 니꾸 , 코스텔)







한국에서 방문한 손님들 (강원도 시골에서 온분들이니 참조하시고 보십시오.)



역시 국제적인 사람과 함께 찍은게 벌써 사진 분위기가 다르죠 ?





트란실바니아에서 몰도바 지방으로 넘어가는 카르파치 산맥의 락쿨-로슈 란 지역으로 기암절벽과  
해발 1800 고지에 형성되어있는 중생대의 붉은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루마니아 최고의 관광지인 "브라쇼브" 773년된 중세도시 중앙에있는 스푼틀광장에서 시골사람과...





루마니아 수도 근교에서 다뉴브강까지 운하를 만들기위해 조성되었던 댐위에서 세분이 (김모,김모,이모씨)흑백사진으로 찍으니 더욱 멋져보입니다.



현지 골재장 앞에서( 이제는 루마니아 골재장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드라쿨라성을 가려고 카르파치 산맥 정상에서 맛있게 점심식사하고 내려와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평원에 도착하니 양떼들이 ,그리고"초반"(양 치기)이 우리와 사진한장....





드라쿨라 성의 옥상에서 바라본 모에츨 지역(이곳은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곳입니다.)



루마니아에 들어온 1호 준설선 시운전을 마치고 브라쇼브로....





뵤이아나 브라쇼브 입니다.(3개의 스키장과 약 48개의 숙박시설이 갖춰진 관광지로 유럽에서도  
산림 조성이 훌륭하다고 정평이 난곳입니다)



누가 찍었는지 사진 참 잘 찍었다.





카르파치산맥의 흑진주라고 불리는 부체치 산을 뒤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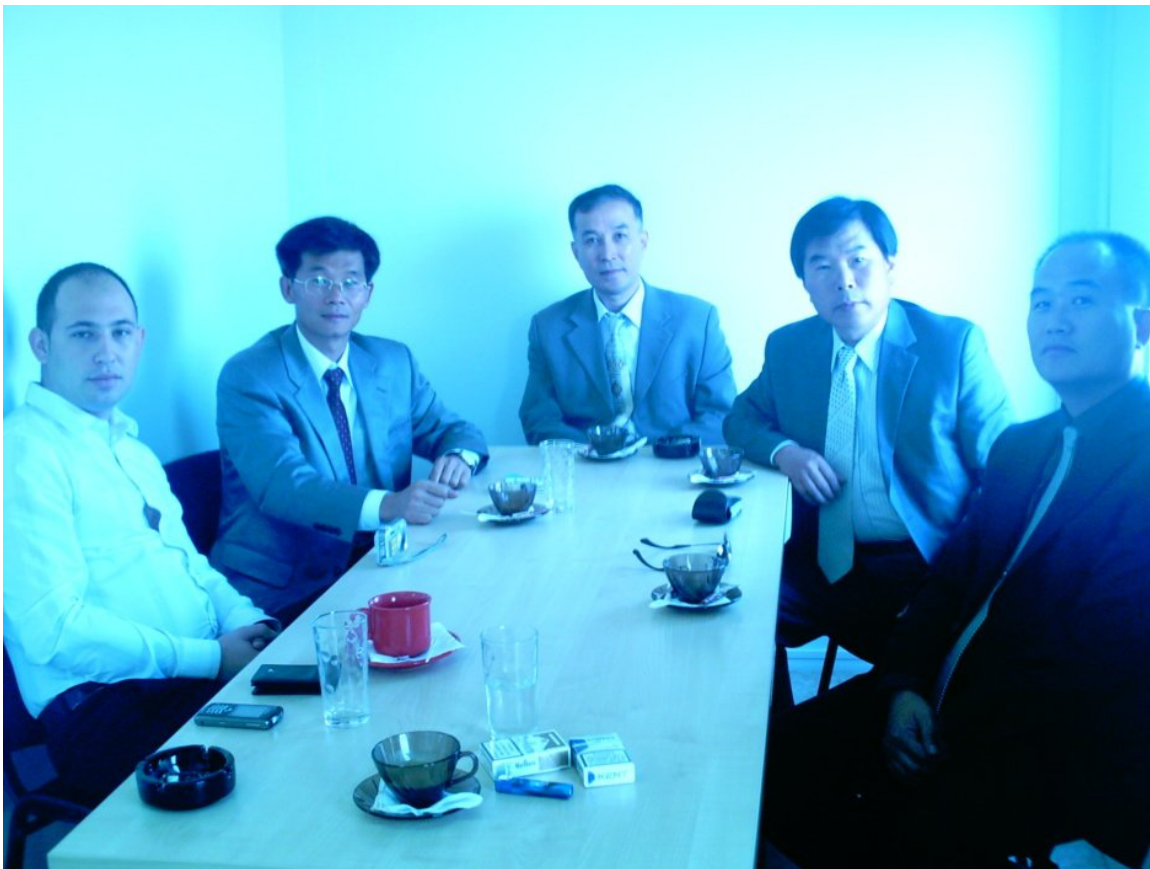


루마니아에 들여온 코파워의 1호 준설선 .





선별기 추레라로 이동하는 모습.(루마니아 운송료는 한국의 두배...)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약 600 km떨어진 아라드의 한 회사에서 미팅....



약 9일간 융성히 고기로만 대접을 했더니 나중에 하는 시골사람들 왈" 돼지,닭,소,돼지,닭,소....  
그래도 잘들 먹더구만....살려고





세계에서 단일건물로 두번째로 큰 인민궁전 앞에서



앞으로 이곳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끝없는 평야를 바라보면 내땅 아니라도 배가 부릅니다.



저~~잠깐만... , 왜 ! 이쁘구만 안이를께 찰칵!(저곳은 불가리아의 중세수도였던 "벨리꼬 따베르노")





결혼식을 마치고 호텔로 피로연을 나와서 기념촬영을 하는 로몬 신혼부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루마니아-망갈리아 해변으로가서 저호텔에 묵었는데 저 결혼식 파티로인해 우리는 잠을 잘수가 없었다,루마니아는 결혼 피로연을 삼일 내리 밤을새며 땡까땡까....무서운놈들....



인종과 나라를떠나 결혼을하는 신랑신부는 마냥 기쁘고 즐거운모양 입니다.





호텔에서 갖는 피로연과는 아주 대조적인 결혼 피로연 장소입니다.

어제 현장을 올라가는데 시골 마을의 결혼식을 마치고 도로변에서 신랑신부, 하객들과 땡까땡까.....  
그래도 가운데 비디오 촬영 기사가 촬영도하고 나는 그옆으로 차를타고 지나가며 카메라폰을 찰칵,  
내뒤로는 말 마차도 지나가고.....



프랑크푸르트 루마니아 행 탑승구의 검색모습입니다,우리 한국인에대해 참 친절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의(에어 프랑스) 검색대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특히 우리같은 동양쪽은 더하며,화물 분실률이 세계의 항공사중 제일이라는 점 참조하세요.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 파리라면 왜그리 좋아하는지 ?





상공에서 바라본 프랑크 푸르트 ,아 ! 이제 거의 다왔다,프랑그푸르트에서 루마니아는 약 2시간....



상공에서 본 독일 프랑크 프루트, 빈틈이 한곳도 없는 나라다,시골이나 도시나 ....





"유로 스트라다"라는 회사의 회의실,아프리카에서 직접 공수해온 온갖 박재들로 장식을 했더군요.



열창을 하고있는 예비 카수.....,루마니아 망갈리아에 사시는 한국분 주부인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현지 호텔에서 공연 제의를 받았답니다,우리는 우연히 방문하여 청취....





전통 짚시의 말마차 집 입니다,촬영이 카메라폰이라 선명치 않는데 저렇게 말마차의 짚시 집들이  
아직도 루마니아에는 많이 있습니다.



회가 먹고싶어 우리 형님댁과 우리가족이 수도에서 약 300 km 떨어진 바닷가에 가서 어부들이 나룻배로 직접 잡아온 광어와 망둥어를 사서 우리가 직접떠서 맛있게 먹었습니다,예전같으면 모든 물가가 너무 싸서 참좋았는데 지금은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니 씁쓸 합니다.





여기가 루마니아 ? 그럴리가 없죠,이곳은 부산 해운대 입니다,봄에 창원에 가다가 잠깐들러....



인천공항. 세계적인 공항입니다,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선진국이며 세계 어느나라에도  
뒤지지않는 대단한 나라입니다,외국에서 살고있는 교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일이 있더라도,그래도 다른나라에 비하면 천국에 살고 있다고 위안 삼으시고 희망과 용기를 갖으시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섯 형제가 근 십여년만에 처음으로 다같이 만났습니다.



루마니아의 바닷가인 콘스탄차 항구옆 "레스토랑 카지노" 건물을 배경으로.....공산주의 시절 저 건물은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큰아들 니꾸 차우세스쿠 소유로 공산당원들의 연회장으로 주요 사용되었다고...





루마니아 수도에서 160 km 떨어진 불가리아의 중세도시인 " Veliko Tarnovo"입니다.

자동차로 불가리아 국경넘어 약 2시간이면 갈수있어서 한국 손님과 휴일날 잠깐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하루 밤정도 묵고오고 싶은곳이었다.





클루주나쁘카에 있는 현지 개신교회인 "SPERNTA"(소망)교회에서 주일예배에 참석했는데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중입니다.



루마니아 교회의 예배중 찬양은 너무 아름답다.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다 알아들을수 없지만 찬송가를 찬양할때 그 리듬과 선율이란.....





유독 루마니아에서도 북쪽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개신교회들은 예배 참석 인원이 보통 몇천명씩하는 규모로 대형 교회들이 많이있다,유럽의 교회들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루마니아의 교회는....



우리교회 여선교회의 찬양모습.





우리교회 찬양팀의 찬양모습,전교인 약 50명중 앙상불 연주팀과 찬양팀까지 땡땡합니다.



루마니아 영업용 택시의 뒷 모습과 차량 번호판.....9484 요 ? 콜 전화번호 입니다.





루마니아 차량 번호판은 자가용, 영업용 구분없이 다 저모양입니다,물론 관용차와 임시번호판,그리고 미 등록차량의 번호판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B는 부카레스트,28 ZYS 는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수 있으며 ,중복된는지의 여부를 가려 발행됩니다.



한국에서는 귀하다고 하던데...., "산 마늘"이라고 하더군요,이곳은 천지가 다 저 나물입니다.조금 늦었나 하얀 꽃이 피었네요,참나물, 둥굴레, 고사리,썸바귀 등등 한국에 있는 나물들 이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제철에 뜯어다가 삶아놓고 일년내내 된장국 끓여먹고 삽니다.





얼마전 둘째아이가 태어나 몸조리하고있는 부인위해 박사장님은 직접 나물을 뜯으로 왔는데,경상도  
사나이라.... 우와 마 엄청만네요...마 싹 뜯어갈깁니더 ㅎㅎㅎ



시골의 작은 시청의 시장님 업무실,우리나라로치면 면 정도의 단위입니다. 루마니아 행정 구역은 루마니아-수도-93개의 시-42개의 주인(도)-코무나(읍)-싸아트(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Cocorasti Colt 시청 모습,우리나라 회사인 다인들과 코파워 회사의 골재 현장이있는 곳입니다.  
4년마다 있는 시장선거로 인해 요즘은 많이 복잡합니다,국민 투표로 과반수표로 결정짓는데  
금품공세,인신공격등등 비리가 엄청 난무하는데 어째든 투표후 결정이 나고나면 깨끗이 승복하고 절대  
이의 재기를 안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어느정도 부정이야 서로 했기에 끝난다음엔 묵인....



루마니아 전통 골재장의 모습과 선별기- 부카레스트 (수도)주위만도 약 80 여개의 골재장이 있다.





운송장비의 대표적인 추레라트럭 - 40톤 트럭으로 22~30 루배씩 실어 나르는데 운송료가 아주 비싸며  
이런 차량들이 근 몇년사이 몇천대가 수도 주위를 누비고 있으며  
그래도 골재가 없어서 못팔만큼 건설경기가 최고의 호황을.....



FCC 란 스페인 회사의 소형 이동식 크락샤 - 25Km 도로공사를 하고있는 회사로 우리와 협력하길 원했는데 우리측에서 하질 않았는데 지나고나니 .....





FCC 회사의 아스콘 설비 등등



음 ! 이곳에는 사금이 있는지 파악을..... 루마니아 전국에 사금은 조금씩 다 있었다.





저 포크레인이 작동될까 싶네요 ?,하지만 이곳 루마니아에는 아직도 거의 저런장비들로 골재 채취를 하고 있으며,어디를 파도 골재가 나오니..... 골재값이 비싼것은 골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골재를 채취하기가 어려워서 가격이 비싼것이며 운송료 또한 엄청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답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곳도 일반 밭을 사서 그냥 파면 골재장이 됩니다.





"다인들 골재장"입니다,우리 한국인의 회사로 ,내가 땅구입 부터 32가지의 허가서 그리고 판매와 수금까지약 6개월간 아웃쏘싱으로 함께했는데,그후 이제는 잘들 하고 있는지,돈은 많이 벌었는지.....



작년 3월에 우리나라 선별기를 현지인 회사인 인다크란 회사에 판매하고 시운전을 했습니다.

이기계가 5번째로 들어온 한국 선별기 입니다,물론 지금도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한정된 땅에서 한틀이라도 더 채취하려면 긴것으로 더깊이 파는게 .....



물속 골재 채취는 저 크레인(드라그리나)으로 파는게 루마니아 식입니다,하루에약 100 루배 ? .....





6섯번째 한국 선별기가 들어설 예정인 골재장 터 모습,토피는 거의없고 약 7미터의 모래층이.....

이곳은 수도 남쪽으로 원석층을 보면 모래가 80 %,자갈 20%,반면에 수도 북쪽은 자갈이 80%,모래20%  
그래서 부카레스트 수도의 남쪽과 북쪽의 제품 가격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골재를 다 파먹고 나면 저렇게 큰 호수가 되는데 저곳에 허가서상 물고기를 키운다나.....ㅎㅎㅎㅎ





24일 가족과 뽀이아나 브라쇼브에서 조용히 지냈다,작은아이 4살때 이곳 루마니아에 왔는데 이젠저렇게 많이 자라고 큰아이는 내년엔 영국으로 대학을 간단다.....



771년된 브라쇼브의 고대 중세도시 광장,혹 크리스마스 행사라도 할줄알고 저녁에 산에서 내려와 보니 커다란 추리이외엔....뜨거운 와인 한 잔에 그나마 쓸쓸함을 달랬다.





일년에 한번있는 한인의 밤 행사장, 최일송 대사님 축하....



" 브라쇼브 주"의 도청 (주 청사),나루 인터내셔널(주)에서 오신 한국 손님과 그밤을 함께....





음 !!! 떨고 있나 ? 드라큐라(블라드 □베쉬)의 생가에서 오늘 저녁 식사를 .....



한국에서 장재만 한국 무용단이 루마니아에서 공연을 갖었습니다. 자 ! 사진도 한장 찍어 봅시다.





공연의 하이라이트 ? 모처럼 아주 즐겁게 잘 관람했습니다,부채춤의 화려함에 모든 관객이 특히 루마니아인들의 환호성이 장내를 뒤집어 놓을번 했다.



루마니아의 겨울도 춥습니다,우리나라보다 눈이 조금 더 많이 내릴뿐 추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눈 인지,구름인지.....아무리 자세히 쳐다봐도 눈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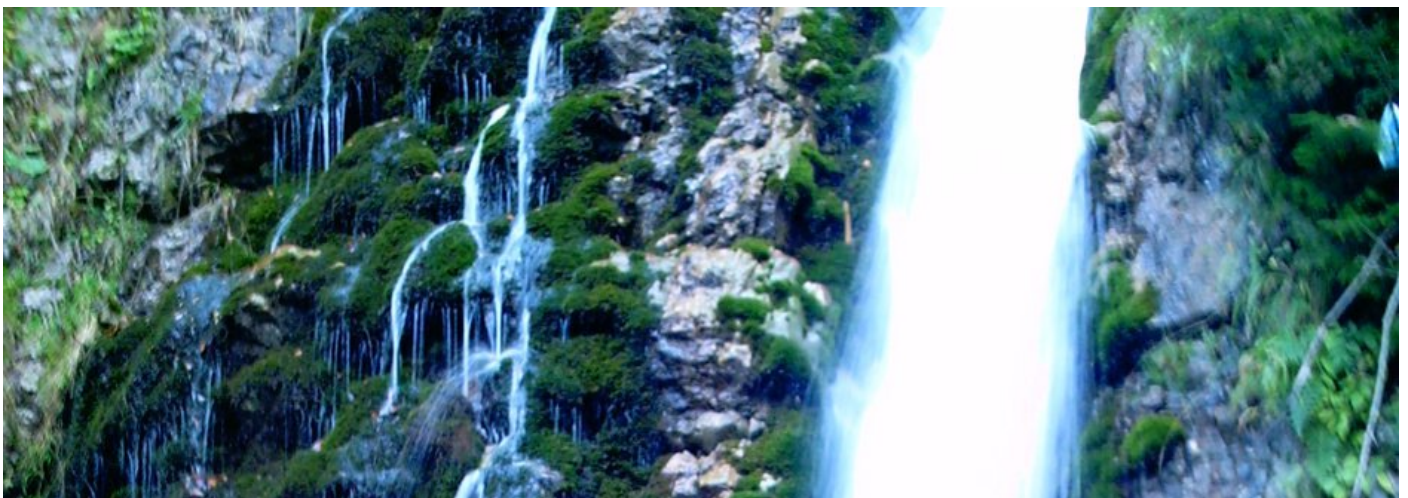


초 대형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소. 이곳은 루마니아의 항구도시 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회사입니다.





가을 야외예배 - "뿌레데알"에서 1박2일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여 선교회 임원들





동생 내외가 루마니아에 방문했다,아주 오랜만에 우리 삼형제가 함께한 시간들이었다.



오랜만에 동서들끼리 만나 함께사진도 찍고.....





바로 손밀 동생인데 다른 외국으로는 일 관계로 많이 다니는데 이곳 루마니아는 형이산지 11년만에 방문이다,모처럼 우리 삼형제는 동생이 가져온 폭 삭은 홍어회로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다.





루마니아 유일의 폭포도보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





새로 구입한 땅에 골재장을 시작하기위해 토피를 걸어내고있다.



루마니아에서 골재장을한지 10년째. 이번이 5섯번째 골재장 허가를 받은 지역이다. 이제는 골재장 허가 받기가 너무 어려워졌다,약 30가지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하니....아 ! 옛날이여 ~





"클루주 나뻬카" 에 코파워 지부를 설립하고 지인들과 함께....



"클루주 나뻬카"코파워 지부장이 식을 마치고 축하를 부른 미녀 가수와....





크로아티아-드브로부닉 시가지의 전경. 역시 세계적인 관광지답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드브로브닉에서 약 10km 더 내려가서 밀리니라는 작은 동네의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기다리며....





드브로부닉 성벽 및 의 아름다운 전경



드브로부닉의 고대 성채위에서,이 성채위로 들어가는데 어른은 10유로 학생들은 5유로의 입장료가 조금 비싸더군요,그러나 이성채위에서 고대 도시를 한눈에 다 볼수있었으며 안들어 갈수 없더군요.





고대 도시를 형성한 큰 성과 작은 성채가두개가 주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성채안의 고대 도시로 들어가는 가파르고 작은 골목들로 옛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저곳에서 시원한 맥주한잔에 그동안의 피로를 씻을수 있는곳 입니다.



뒤로 보이는 저 선박을 타고 하루종일 드브로부닉 고대도시 주위를 관람하는 유람코스로 일인당 점심포함하여 40유로로 타고 관람할만한 가치가 있었다.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반까지의 일정.





선상에서 먹는 점심, 짬뽕미와 고등어 그리고 와인....



바다는 그리스보다 못했지만 물도 깨끗하고 전경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함께 유람선을 탔던 이태리가족,언어는 루마니아어로 서로 통했는데 어떻게 이태리말을 하느냐고  
물길래 나는 루마니아에 산다고하니 이해를 하더구만요,아이 이름이 안토니오라며 소년 수영선수라나.... 먼 훗날 올림픽에서 보기를 기대한다  
고하니.....



드브로부닉 성및 항구로 저 많은 배들은 렌트용과 개인 배들.





멀리 드브로부닉 고대 성채가 보입니다,작은 아이 이다행



멀리서보면 조용한데 ,어찌나 관광객이 많은지 .....





갑판 맨 위층에서.....고소 공포증이있는 나는 아주 무서웠다.



저 배는 손님이 꽉찼는데 거의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동양인은 별로 없었다.





저 세명의 여자들은 항상 내 주위에서 내 주머니를 훔쳐내곤 하는데 아이스크림값이 비싸더군요.







"보스니아 수도"인 "샤라예보"의 고대 시가지. 수도인구 약35 만정도 살고 있는 도시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별로 구경 거리는 없었지만 생각하고 있던,내전이 심했던 그모든 선입견이 완전히 뒤바뀌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고 편한 모습에 나도 그만 너무 편안한....



고대 시가지 내에 도깨비 시장처럼 거미줄처럼 형성된 기념품 가게들로 넘치고 있었는데 살만한 물건은 별로 없었다,단지 구리 세공 기술이 발달한 곳으로 거의 청,황동 세공 제품들이었다.





"모스타"란 도시의 모스트라강



관광 자료에 많이 나오는 곳으로 아주 오래된 옛 다리 라던데 주위에 온통 기념품 상점들로 즐비합니다.  
이곳에서 관광을 하고있던 한국청년 한사람을 만났는데 반가웠다.





샤라예보 구시가지의 대표적 상징인 탑앞에서....



샤라예보 의 전경





큰 아파트와 큰 건물들이 많이 있었으며,건설붐이 일고 있었다,사람들이 너무 좋았다-온순하고,친절과  
정직성은 루마니아에 살고있는 나를 놀라게했다. 물가는 루마니아의 약 60%정도로 저렴했으며 4인  
가족이 맛있게 고급으로 식사하는데 약 40 유로정도.



온통 산으로 둘러 있었으며 거의 평야가 드물었다,산천이 아름다웠으며 물이좋아서 맥주맛이 일품....





구시가지내에 있는 대학건물



























금붕어 모양의 루마니아 지형을 삼등분으로 구별해놓은 "카르파치 산맥의 흑진주"라고 불리는 "부체치 산" 입구로 해발 2,200 m 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교회 남선교회의 등산으로 오늘 처음으로 등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모처럼 한시간 가량의 산행이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아니 ! 루마니아에 이런곳이 있었단 말이여 !!!! ,계곡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손을 못넣겠더군요.





카르파치 산 중턱쯤 자리한 루마니아 유일의 폭포입니다,오늘 산행은 이곳까지...여기서 밥먹자 !



루마니아 젊은이들이 꽤 많이 이곳을 찾더군요,유일한 폭포며 약 한시간정도 걸리니 올만하더군요.





집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폭포 바로 앞 큰 바위 위에서 상을 차렸습니다,이야 ! 폭포를 앞에두고 먹는 도시락 맛 이란... 남남남,옆에서 침흘리며 쳐다보는 루마니아인들에게 김밥조금 나누워 주고...



한시간 올라와 곧바로 도시락만 까먹고 금방 내려가려니 조금 서운하시다나....거 우리 나이를 생각해  
오늘은 이쯤하고 다음에 또 옵시다,아따 빨리 가잔게 벌써 두시구만....





요즘 연일 40 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새가 도로가에 고인물에서 목욕을 하는데 ,이야 ! 새 목욕 하는 것 처음 보는데 한마리는 망을보고, 몸을 좌 우로 굴르는 동작을 반복하며 더위를 식히더군요.



이곳 땅 입니다. 부카레스트 기점 약 12 km ,차로 약 20 분,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까 ?  
서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사두라고 하더군요,몇년전에비해 몇십배가 오른 땅을 어찌 사라고...





밀알이 익어 가는데 루마니아 도시 주위의 땅들은 건설 현장으로 뒤엎어 지고 있습니다.  
약 1ha 의 농지 땅을 임대주고 받는 일년 수입금이 약 100 달러 정도라니, 그냥 놀리고 말지....



해바라기 밭도 가물어 올해 농사가 심히 우려되는군요,하기사 농사꾼이나,도시근교 땅 소유한분들  
다들 때 부자들이 되었으니 그리 염려할것도 없내요,몇년전 불과 0.2달러 하던땅이 몇년만에 지금은  
최하 몇십유로씩하니...





"봄 한인 체육대회" 전체교민 300명도 안되는 루마니아 교민은 거의 다 오셨군요 !

건강하고 평안하신 모습들 뵈게되어 많이 반가웠습니다.참 어떤분이 막걸리를 손수 만들어 오셔서 두잔이나 얻어 먹었습니다,어찌나 맛나든지....내가 늘 입버릇처럼 아 ! 막걸리가 먹고싶다고,누구 한국에서 오시는분들 왜 ? 막걸리는 안가져오시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루마니아에서 담근 막걸리를 먹었습니다.



어 ! 저 아줌마가!!! 사진찍어 준다니까 커피를 따르고있네... 음! 박새별이만 저의 엄마와 함께 한장.



축구도하고 다리뒹어 경주도하고 점심도 맛나게 먹고....





올 초에 들여온 "골재 선별기" 오늘 드디어 시운전을 했습니다.



재품이 아주 깨끗이 생산 되었습니다. 98년 1호기로부터 4호기의 한국 선별기가 가동되는 순간입니다.



처음 보다는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도 보안 할곳이 많았습니다.이 현장은 "인다크"라는 루마니아 현지 회사로 6개의 레미콘 회사등을 보유한 ,근래에 가장 활발히 성장하는 건설사 입니다.



42 ha 의 밭을사서 골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루마니아는 어디를 파든 모든땅이 큰 바위같은 돌이 없고 거의 골재가 있는데 걸의 흙인 토피가 얼마나 되는냐가 문제지 다 골재용 제품이다,물론 거의 어디나 3~6 m 정도만 파면 물도 칼칼 나



오니 ,저기도 약 3m 째는데 물이나와 저 물로 골재를 씻는다.



음 ! 땅은 아주 좋은데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 , 불과 약 1년전 0.4 유로하던 땅 구입하려다 안했는데  
그땅이 지금은 약 60유로 간다니 아이쿠 배야.....,하기사 98년에 sqm 당약 1~2 달러하던 땅이 지금은 약 2,000유로로 올랐으니 몇 배가 오  
른건지.....,자고 나면 오르는게 땅값인데 우리 한국분들 땅 못산다.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재다가,항상 이제 다 올랐겠지 하는데 계속 오르니,



수도인 부카레스트 도심에서 약 15 km 떨어진 곳인데 후방 약3km 에 부카레스트 외곽도로가있고 전방엔 우리 한국 기업인 두산 중공업이 있으며,왼편으로 DN 4번 도로가 있다, sqm/25 유로 입니다.



김 사장님 ! 오늘은 결정 합시다 !, 내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골재장 부지를 많이 사다보니 꽤금은 알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잘 모르겠다. "김사장님 맘대로 하세요...."





이 갈아놓은 땅이 약 50ha 인데 이태리사람들이 골프장을 만든다며 막 사들이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공원안에 자리한 "타이탄"이란 건물로 알바니아 수도에서 유일하게 볼링장,카지노,고급 식당등이..  
몰려있는 곳으로 서유럽을 방불케했다.





한 건물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맥주한잔 들이키며 내려다본 "알바니아 수도인 티라나"의 전경.  
누가 이곳을 한달월급 100~200달러 수준의 나라로 보겠는가 ?,약 2년전에 왔을때하고는 너무많이  
변한 모습에 ,땅이나 아파트,집값은 만만치 않았는데 레스토랑의 음식값은 루마니아의 30%수준인  
일인당 약 6유로로 최고급 VIP대접을 받을수 있었다.참고로 루마니아는 대충 한끼 때우려고 해도  
일인당 약 15 유로 선인데 아마 유럽에서 최고로 물가가 비싼곳일것이다.



집값은 시내 중심의 약 25평이 약 8만 ~10만 유로 정도로 루마니아 보다는 엄청 싼다,거리의 차량은 약 70 %이상이 벤츠 였는데 다른 차는 도로가 너무 얇아서 견디질 못하므로 가장 튼튼한 벤츠만이....



마케도냐에서 알바니아로 들어가는 알바니아 국경. 10 유로의 입국 비자 수수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예전과는 달리 친절하고 많이 변한 모습을 볼수있었다.





수도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친구분 내외분과 멋지고 맛있는 식사를하고 동행한 우리 직원인 변호사 니처씨,우리는 서로 알바니아에 놀래고 있었다.



나도 한장 찍자....어리숙한 촌놈이 10년넘는 외국 생활에 이젠 조금 세련되 보이지 않습니까 ?



현지에 사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 사모,그리고 친구분 마나님이 ..평안해 보이시더군요.



박 사무엘,이다행,박셋별, 불가리아 루세,이곳이 루마니아보다 물가가 싸다며 쇼핑을 나왔습니다.  
국경을 넘어 아이들이 쇼핑을 간다.....





모처럼 아이들을 떼어놓고 아내와 함께 근교로 소풍....





모에추에서 갖은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자 자 웃어요 !



"한인의 밤" 행사에서 연주하는 우리교회 "글로리아 양상불" 입니다.





부쿠레슈티 남쪽 판텔리몬 지역에있는 레바다 호텔에서 바라본 해돋이.



대학 로터리에 2007년 EU가입을 축하하기위한 추리탑을 세우고 자축하는 루마니아.



어제 눈두덩이를 다쳐서 아파하던 아이가 사진 찍어준다니 포즈를 잡고 섰습니다.



뵘이아나 브라쇼브에서 브라쇼브 시내로 내려오는 길에서 바라본 브라쇼브 구시가지입니다  
700 년된 중세도시로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흑색교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이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 하네요



부쿠레슈티 한 복판에 자리잡은 187 ha의 헤러스트로우 공원



드라쿨라성 뒷편에있는 모에추라는 곳으로 눈내린 설경이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부쿠레슈티에서 브라쇼브로 가는 길





대학 로터리에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의 야경



평소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데 올해는 영 눈구경 하기가 어렵네요



"인민궁전"약 1,200 개의 방으로된 세계 두번째로 큰 건물로 현재는 상.하의원 집무실로 사용중입니다.



국기 위 베란다에서 차우세스쿠가 1989년12월 22일 마지막 연설을하던 곳으로 구 공산당 본부건물.





"크레츨레스쿠" 교회



"아테네 음악당" 영웅광장 내에 있으며 그 내부의 웅장함이란....



국보 1 호인 "펠레쉬 성"입니다.



수차바 지방에있는 5 대 수도원 중 하나로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건물입니다





"개선문" 도심의 초입에 있으며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만들었으며 높이가 2m 낮은것 외거 거의 비슷....



정면 뒤편의 건물이 "흑색 교회"로 브라쇼브 구시가지 광장에 있으며 고딕체 건물로 가장큰 건물입니다.



전통 루마니아 정교회 건물로 각 지방 마을마다 한개이상씩 있습니다.



루마니아 전통 가옥중(민속촌 내)





트란실바니아의 산간지방 모습



전통 루마니아 여인의 옷을 입고 전통 민속춤을 추는 여인(브라쇼브의 한 전통식당에서)



약 200 년전의 루마니아 최초의 여인숙인 "하늘루이 마늑"이란 여인숙 앞에서 전통 악기인 "나이"를 연주하고있는 걸인.





치즈 축제를 하고있는 작은 마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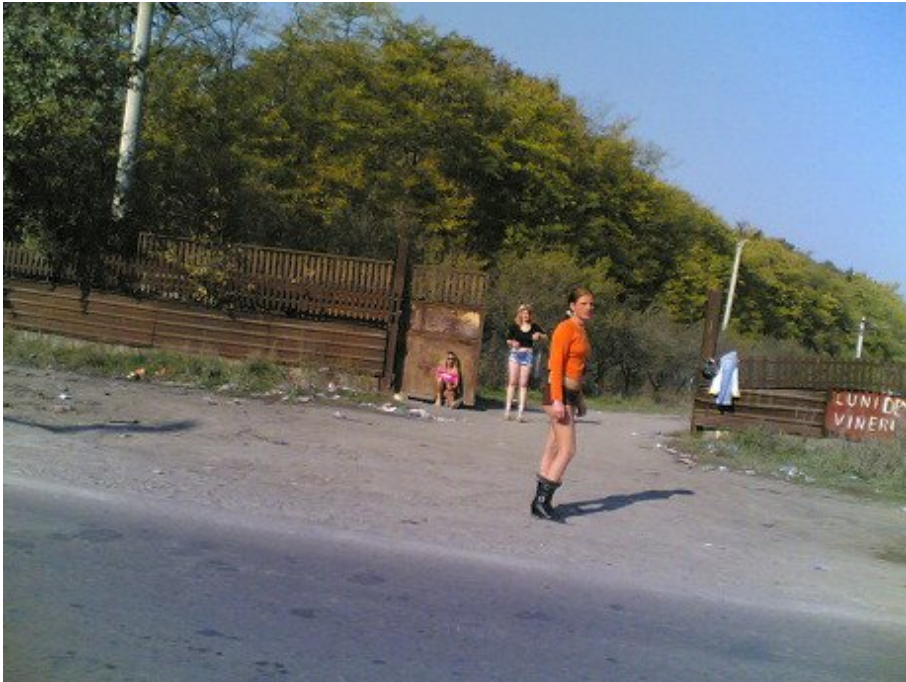


아테네 음악당(연주자는 네델란드 음악가)



인터시티란 열차에서 쿨쿨~~~~





외곽도로에는 아직도 저런 여성들이.....,그래도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그래도 EU 국가인데....



"초반"(양치기)청년,22세로 월 200 불정도 받는데 돈을 모아 결혼을 하고 싶다는군요.



해발 2,200 부체치산의 정상,케이블카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금강산을 연상케 합니다.





루마니아 경찰 싸이카 (어째 좀 믿음직하지 않죠,하기사 이것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결혼식장 모습입니다.

집 마당에 천막치고 테이블 만들어 온 동네 주위 하객들을 모시고 2박3일 땡까땡까 마냥 먹고 춤추고 즐깁니다.(축의금은 약 한달 월급정도로 많이내는데 품앗이 형태이며 방면에 조의금은 안냅니다,왜냐고 물으니 죽었는데 언제 본다고,,,,현실적이라고 해야되나,삭막한건지...)



신부가 높은 단상에 올라가 온몸을 흔들며 아-샤 ! (춤이 생활화되어 부끄럽게 생각치 않죠)



국보 1 호인 펠레쉬성 입니다.(외부 보다는 내부가 훨씬 아름다운데 글로는 표현 불가능)





저 ! 장관님 !사진 한장 같이 찍어도.... 흔쾌히 응해 주셨고 뒤를이어 다른 사람들도 저도요,저도요..



국회의원이신 배의원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다.여선교팀과 아니 전여성교인과 기념촬영.

대통령께서 루마니아에 방문하셨다.

한-루 수교 16년이 되었지만 교민전체 약 200여명의 한인이  
가장작은 나라중에 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외진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는 곳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신다니

모든 교민, 아니 한국의 가족 친지등에까지 화제가 됐다

방문소식을 처음들던 그날 이곳 교민 사회에는 뭐라고?

대통령께서 정말 이곳에 오신다고....

큰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외국에살다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도 늘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을 위해 늘

기도하고,이곳 루마니아인들에게 기죽기싫어 핏대를

올려가며 자랑하던 조국 아니었던가 !

대통령님께서 통포 간담회장에서 하신 말씀중에

"내가 인기가 없는것은 우리 국민이 바라는 희망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찜 올려왔다.아니 지금도 뇌리속에서 반복되어

되새겨짐을 상기하며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비록 지금 인기는 조금 없으셔도 먼 훗날 역사가 바로

증명할것인데 눈앞의 대중 언론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그 소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루마니아 거주 만 10년으로 가장 오래된 개인 사업자로

이번 행사때 경호팀들의 통역 안내를 도와가며 국가

행사의 일부분을 느끼며,직접 참여하며 볼수 있었다.

보이지않는 뒷부분에서 묵묵히 맡은바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못해 신들린 사람들처럼 움직이는 경호팀들을

보면서 처음엔 너무 세밀하고 정확히 체크하고,확인 반복작업에

지겹기도 했는데 점차 그속에 빠져들어 나도 경호원이 된듯한

내 모습에 피식 웃음이났다.

사업하는 내 입장에서 야 !이런 팀들로 사업을 한다면

"세상에 못 이룰일이 하나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기간 내내 수도없이 들었다.

대통령님 ! 드러나지않은 뒷전에 그와같이 투철하신

사명감과 대통령님을 닮은 소신있는 분들이 계시는이상

대통령님의 안전에는 필발의 문제점도 존재할수

없을것을 확신합니다,어디에 가시고 어떤곳에 계셔도 아니

그정도라면 평양에 계셔도 안전하시겠습니다.



경호원의 업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것을 알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무원을 볼수 있어서 지금껏 갖고있던  
 저의 공무원상이 바뀌어짐을 느낍니다 .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 최기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교민 분들께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고 직원분들께 하신 말씀 나중에 들었습니다.  
 모든일들을 함께한 김대권 과장님 !그 치밀하심 많이  
 배웠습니다.묵묵하시고 편안히 대해주신 이석재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문동주 과장님,그리고 내 파트너  
 지상은 계장님 ! 파트너라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학 계장님,홍승빈 경호관,문홍렬 경호관,손영준  
 경호관과 함께한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안전하며,  
 대통령께서도 평안히 국정에 최선을 다하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p.s 매일 점심 식사 오후 2~3시에 먹었던 컵라면 ....  
 바쁘시더라도 밥을 잘먹어야 일도 잘할수 있습니다.  
 덕분에 귀한 라면 여러날 잘 먹었습니다.)  
 대한민국 경호원 여러분 ! 화이팅 !



동포 간담회장 모습



9 일간 함께한 분들 (자 !자! 긴장들 푸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 일간 대통령께서 이용하신 차량





업무를 다 마치고 (어디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 온도가 42 도를 웃도는데 건조해서 그늘밑은 시원합니다, 통일 광장의 분수대가 무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해도 보기에는 시원합니다.



고 차우세스쿠 별장이 있는 시나고브 유원지로 한인 야유회를 갖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저녁을 지을수 없다가에 가족과함께 독일 전통식당에서 저녁 식사하고 인민궁전앞을 지나다가 불을 대낮처럼 환희밝힌 모습이 멋져서 작은아이를 모델로 찰칵.



블레아 락크 - 해발 2,500 고지로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처럼 호수가있고 아직도 눈이 덜 녹았네요. 저곳까지 자동차가 올라 갈수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젠 제법 관광지 같네요.



블레아 락크를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방목하는 돼지를 원하면 직접 바베큐도 해준다가에 군침이 돌더군요.(루마니아 돼지고기 맛! 꿀꺽)  
 약 30분 걸리는 올라가는 길이 정말로 아름답더군요,그리고 벌써부터 추워서 오슬오슬...



웬 궁전....

전통 짚시 집 입니다. 가족이 원낙 대가족이고 형제간에 나란히불허 집을짓는 전통이 있습니다.  
 짚시라고 다 떠돌면서 사는게 아니라 현지인과 교화되어 사는 짚시도 많은데 루마니아 사람들과달리  
 집 건축 양식도 저들만의 양식으로 짓고 스스로 짚시라고 내세우며 사는데 갑부 짚시들이 많습니다.





Casa Poporului (인민궁전)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통일로.

단일 건물로 세계에서 펜타곤 다음인 두번째로 큰건물로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개관됐고, 앞에 보이는 저 도로가 평양의 인민 주석궁앞 통일로와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다인들 회사 골재장에서 제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약 20 여가지의 골재허가를 취득하고 기계 시험운행도 마치고  
이제는 열심히 돈을 거둬들이기만....



- 의지의 한국인들. 안되는게 어디있어 ! 막 밀어붙혀보랑께..





어!! 거참 속스럽구만.

주말날아침 교회에 갈려고 아파트를 나서며 ... 눈이부신 아침 햇살이 우리 가족을 붙드는군요.



저 세명의 여자들은 항상 내 주위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사진같은것 찍는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 음 역시 눈을 감았군





원유를 채취하는 기계 ( 무인으로 하루종일 소형 모터의 동력으로 원유를 뽑아 올리고있다, 루마니아는 원유 생산 수출국으로 원유 정제기술,능력이 부족해 원유는 수출하고 정제된 유류는 수요량의 약 60 % 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위와같은 기계들을 루마니아 들판 여기저기서 많이 볼수 있으며 많이 모여있는곳은 수십대의 기계가 모여있는곳도 있다.



위 건물은 ARAD 시청 건물입니다.(루마니아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인 "도" 와 비슷한 JUDECUL 이 42 개 있는데 그중 헝가리 국경에있는 지역으로 도청과 같은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시원하게 감상하십시오.(작년 겨울 출근길에)





"가격좀 깎아봐 !" 우리 변호사 니쳐씨가 국가 토지공사 직원에게 흥정...(그래야 너도 남고 나도조금...)  
끝이없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이곳은 눈을돌리면 다 지평선,우리나라 김제평야 크기는 동내앞  
한사람이 짓는 땅정도(과장이 좀 심했나)  
지역과 위치 도로상황등에따라 다르지만 수도에서 약 20~60 km 정도 거리의 농지용 땅가격은  
약 0.2 ~ 0.6 유로 정도 형질 변경은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외국인들이 많이들  
사고 있는데 ...



비교적 땅은 비옥한 편이고 날씨가 좋아서 농작물은 잘 자랍니다.  
 위 사진의 땅은 골재장용으로 흙이 약 30 cm이고 그 밑은 전부 모래 자갈이랍니다.  
 나는 농사지를 땅이 아니라 골재를 파낼생각인데,이곳 사람들에게는 비밀이거든요.  
 외국인이 이곳에 골재를 채취한다는 사실을 알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ㅎㅎㅎ



세계적인 물류 업체들이 대단위 물류창고를 짓고 있는곳으로 새 고속도로가 저 옆으로  
 나가거든요. 수도에서 64 km 로 우리도 그 주변땅을 , 우리는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이 근방땅은 sqm당 약 0.6 유로 정도 합니다.





조카 이 석훈과 유채밭에서 한장찍자. 끝이 안보이는 유채꽃밭이 달리던 자동차를 멈추는군요.



코파워 회사입니다.( 사무실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



소들의 퇴근시간... 참 신기한것은 저렇게들 가다가 각자 자기집을 한마리씩 찾아갑니다.  
왼쪽 작은 소년이 소치기소년,아르바이트로(일당2불) 약10세정도 아이들이 하루종일 들에서  
풀을 뜯기다가 오후 해질녘이면 동네로 몰고옵니다...음 오늘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기계 제작을 다 마치고 ...자 ! 그동안 고생들 했수다...노룩 ! (건배)



몇가죽 안되는 한인들이 함께 수도근교 시나고브란 숲으로 가서 맛있는 불고기파티를...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ISB 바자회 - 꼬레아



8명의 한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풍습에 대해서 BBC 방송국의 취제가 ...김치,김밥,잡채,불고기를 설명중.



ISB 학교에 유학온 미스터 안동 가족







루마니아 전통 댄스를 추고있는 ISB 학생들







설 날 교회 사택에서 새배를 하는 아이들.

한인이 많을때는 약 500 명정도 였는데 이제는 아이들포함 약 200 명의 한인이 있습니다.





14년간 루마니아 한인 목회를 마감하시는 목사님과 기념사진 한장.( 목사님,제 작은딸,제 부인 )



한인 아멘교회 목사님 이.취임식 장면



초대 루마니아 대사님의 이임사.



위 스키장은 POIANA BRASOV , 수도에서 190 Km 떨어진 루마니아 최대의 관광지 .



부카레스트에서 제일 높은건물인 인터콘티넨탈 호텔 16층에서 내려다본 대학 로터리.





인터네셔널 학교에 4명의 한국학생이 새로 입학을 ...( 우리 큰딸,.....이상 4명 )



인민궁전 앞 통일로 - 멀리 인민궁전이 보인다,세계에서 단일건물로 미국의 펜타곤건물레이어  
두번째로 큰건물이며 방이 약 1,200 개,차우세스쿠의 아방궁....



부쿠레슈티의 중앙로인 마가루거리 - 중앙로 약 3 km를 화려한 등으로 장식하는데 매년 다른



모양으로 꾸미는데 올해는 둥근 눈덩이 모양....



예전같지않고 러시아워에 관계없이 차량이 밀리는데 서울보다 더 밀린다.

약 3 km 의 중앙로를 통과하려면 약 한시간정도 소요된다, 누가 루마니아가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지....., 2004 년 데이터로 일인당 2,680 유로의 소득이라 ,이해할수없는 루마니아다.









알바니아를 가며 오며 경유한 나라다.

한국사람은 트란짓 비자를 수수료 68 유로내고 받은후에 지날수 있는나라이며 알바니아 보다는 조금 잘사는 나라이며 물가는 저렴했다.(4 명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총 30 유로지급 ) 갈때는 길을 잘못들어 약 150 km 를 돌아갔고 올때는 눈이 많이내려 엄청 고생했음.

아래부분 사진은 수도인 스코쁘제 광장. 그날 대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전 시민이 그 광장에 밤세도록 춤추며 놀고 있었다. 이사장,남사장,조나단 세사람도 즐거운듯....

그밑 사진은 이사장님 !!! 마케도냐 사람들도 우리 동양인에게 관심있게 다가왔으며 사진을 같이 찍기를 원했으며 친절했고 밝았다.

나는 그날 세사람 통역하랴(내마음대로), 사진찍어주랴 정신없이 ....

군밤 한봉지에 us 1 \$ 이었는데 아주 맛이 있었다, 우리나라 군밤하고 똑같았다.





알바니아 전통 야시장 (우리나라 70년대 초반의 풍경같음)

수도에서 약 40 km떨어진 곳으로 규모가 큰 시장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시장의 원숭이가 되었다.(모든 사람들이 신기하다는듯 나를봤다.)



알바니아의 시골 풍경과 멀리 공동묘지가 보인다.



알바니아 수도에서 약 60 km 떨어진 시골마을을 지나며...  
 이곳 아이들은 태어나서 나같은 동양인을 보기는 처음이란다.  
 아이들의 옷차림이 남루하기는 그지없었지만 그 얼굴엔 순수함과  
 미래를 향한 동경의 비전도 갖고 있었다.



알바니아에 계시는 우리모임 (SEBA W.T.M)의 김종대 사장님과 현지 골재장을 방문.  
 생산능력,수요량, 가격, 도로상황등 도로건설 분야를 살펴봤다.  
 9 년전 루마니아에 처음 발을 뒀을때가 문득 생각났다.



유럽, 발칸쪽에서 가장 낙후된곳 같았다.



바다인줄 알았는데 호수입니다.

하루쯤 묶고 가고픈 멋진 곳이었습니다.



무지개가 분명 인도하고 있었다.

노란차 기사에게 길을 물어보는데 말이 한마디도 안통해도 열심히....







야경이 최고라고 하는데 나는 아침에보는 부다페스트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여러번 와봤지만 올때마다 참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한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만에 부다와 페스트를 다보고 다뉴브 강변에서  
커피한잔하고 900 km를 가야하는 루마니아로 핸들을 돌렸다 .



루마니아의 바다는 12 해리의 흑해가 있다.

해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류는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 이 콘스탄차항으로 입국된다.





신호 대기중 핸드폰으로 찍은 루마니아 관문격인 "개선문"

부카레스트가 작은 파리라고 불리울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형 도시로 전락 되었지만 간간히 남아있는 15 ~ 18 세기의 중세 건축물도 있다.

이 개선문은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서 만든 조형물로 2 미터가 작은것 이외는 거의 똑같아 처음보는 분들은 구분을 못한다고 함,역시 루마니아의 세계 1 차대전 승전 기념물임.



손으로 만드는것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 입니다.

상업 디자이너가 꿈인 12 세로 현재 인터내셔널스쿨 7 학년 입니다.





내가본 루마니아 93 개 도시중 가장아름다운 도시 " 프루구 무레쉬 "  
다섯명의 동양인이 시내를 구경하며 걷다가 한사람이 루마니아 여인과  
사진을 찍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한 할머니가 나도 동양인과 한장....

순간 다들 도망가고 할머니가 무안해 할까봐 조나단이 얼른 포즈를 취하고  
나는 터지는 웃음을 참으며 "야 ! 멋집니다 " 하며 섯터를 찰각.  
순진하시고 용기있는 루마니아 할머니 화이팅 !



### - 루마니아 사람들 ( 2 )

원 민족은 다짜아 민족이라고한다.

BC 6 세기경부터 지금의 부쿠레슈티 남쪽 도브레자지역에 원주민들이 산것이 루마니아인들의 조상이라고 기록되고있다.

그후 로마군대의 침공으로 원주민들은 흩어지고 북쪽으로 이동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짐 . 이때부터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인들이 자리를 잡고 고대 국가로 형성되어가며 밀라노 칙령당시 기독교가 들어와 그후 기독교 국가의 문화가 형성된다.

그래서 현재의 루마니아 인들은 로마의 후손이라고들 말하며 루마니아란 국명은 1862 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1866 년에 국호로 인정되었으며 루마니아란 뜻은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토지 "라는 뜻으로 라틴 민족성을 띠고있는 민족이다.

노무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루마니아 직원들 관리하기도 그리 쉽지는 않다. 43 년의 공산주의를 격으며 이사람들은 눈치를 보는게 가히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거리를 거닐다보면 누구나 금방 느끼는데 특히 여자들은 사람들을 쳐다볼때 흘깃흘깃 옆눈으로 옆사람들을 쳐다보며 지나간다,섬뚱한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경찰관이 아무 이유도없이 불러도 사족을 못쓰며 눈빛도 마주치지 못하는데 완전히 자폐증이나,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무서워한다 요즘들어서는 이유없이 도로 경찰관이 차를 세우면 간간히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 저런일이 ! ,변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자기 실수나 잘못을 끝까지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시절에 실수나 잘못의 인정은 곧 자아비판이나 숙청이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남의일에 관심이 많다,우리가 알고있는 북한의 5호 담당제 같은 구조로 어떻게든 주위 사람들을 경계해야 자신을 지킬수 있었기에 그런 습관이 배어있으며 이것을 공산당은 적적절히 이용했던 것이다.

현장을 들어서면 길어야 십분정도 둘러보고 나온다 .

현장소장을 불러서 몇마디만 나누고 현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다 알수있기에 굳이 일반 직원들과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데 각 장비앞을 지나면 으레히 기사가 다가와 SEF (사장님) !

저기 할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면서 말을 걸어온다.

"그래 !" " 무슨일인데 ? "하며 담배한개비를 건네면 고맙다고 하면서

주위 동료들의 비리를 다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회사를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조금가서 다른장비 앞을

지나면 그 장비 기사도 역시 똑같은 수법으로 같은 동료들을

고자질한다,그때마다 느끼지만 기분이 아주 상한다.

정말로 이땅에서 이런 자들과같이 살아가야되나 싶다.

결국은 내 눈에는 다 도둑놈들로 보여지는데 심정이 답답해진다.

그런세월이 십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데...

물론 오늘 이야기처럼 다 나쁘고 거짓만 있는것은 아니다.

이사람들이 이사회가 우리보다 우리사회보다도 훨씬 좋은점들도

아주많다, 다음은 루마니아 사람들의 좋은점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다음 "루마니아 사람들 (3) "





루마니아 최대의 건설사인 CCCF 디렉터인 스트레이네스쿠와 지방도로 건설현장에서.



수도 부카레스티에서 약 500 km 떨어진 교육도시 클루주나쁘까 입니다.

인구총 30 만중 대학생이 약 8만이니...

도시 바로위 상수원지역이며 송어 양식장이 있는곳 입니다.

회가 귀한 나라라 송어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코파위를 통하지 않으면 회 맛보기 어렵다는 사실.





-처음 취지와는 달리 루마니아 이야기를 중단하고 그냥 내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려 했는데,용기를 주던 어떤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루마니아 이야기를 전개하려 합니다.

꾸미지않고 모자라고 부족한 그모습 그대로 올리고자 합니다.

방문하셔서 봐 주신다면 보시고 많은 용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 루마니아 사람들 (1)"

행정구역상 유럽이지만 지역은 발칸쪽에 더 가깝운 나라다.

동유럽 국가들중에서 유독 "라틴 민족"이며,다른 나라들은 슬라브계인데, 그래서 바로 이웃 나라들과 현저히 다르다는것을 느낀다.

슬라브계가 차갑고 분위기도 냉랭한 점에비해 라틴민족의 특성상 밝고 활발하지만 말을 쉽게 하므로 거짓말을 잘하며 43년간의 공산주의 체제로 황폐한 심성을 갖은것을 느낀다.

강자에게 비굴하리만큼 약하고,약자에게는 강하고, 의리나 정,약속 도덕적인 인간성 이모든점들은 루마니아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드라쿨라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사상과 체제가, 43 년이란 공산주의 세월이 만들어 놓은것같다.

98년. 1월달이라 눈이 많이 내렸다.

항상 도로가장자리엔 밀어놓은 눈들이 사람들 허리를 가릴만큼 쌓여있고 들에나 빈곳에는 하얗눈이 1 미터이상은 늘 내리고 녹고 천지가 온통 하얗다,우리나라보다는 겨울이 약간 길고 조금 더 기온이 낮지만 피부 체감온도는 눈이 항상 많아서 포근하게 느낀다.

이래저래 심기가 심난했다. 무슨일이든 속 시원히 마음과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남자직원인 라듀를 내방으로 불렀다.

"법원에 가서 이 서류 등록 사항을 알아보고 언제쯤 결론이 나는지 확실히 알아봐라 "더듬더듬 단어들을 동원해 말했다 그리곤 곧바로 한국말로 "이 답답한 놈들아 ! "하고 나도 모르게 뱉어내고 있었다.

서류접수시킨 변호사는 늘 같은대답...오리무중....

담당 판사가 휴가중이라 법원 업무가 중단되고 있었는데 휴가간

그놈은 언제올지 아무도 모른다니 복창이 터질 지경이었다.

다들 느긋하다.나만 팔딱팔딱 뛰고 있으니 더 화가났다.



이런걸 문화가 다르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야하나 ? 늘 고민스럽다.  
 라두가 머뭇머뭇 거리기에 "빨리빨리 다녀와 "물론 빨리 빠리는  
 한국말로 했다. 라두가 다가와서 하는말이 법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단다. 기가막혀서... "뭐 ,뭐시라고 "  
 이곳 부카레스트에서 태어나 23 년을 살고 대학까지 이곳에서  
 나왔는데 관할 법원이 어디있는지도 모른다니....  
 "넌 도대체 아는것이 뭐냐" 잘 이해할수가 없었다. 기가막혀하는  
 내게 라두는 내가 알아듣기쉽게 " 난 여지껏 법원엘 가본적도없고  
 앞으로도 갈일도 없다,그래서 알고 있지 못했다 "  
 어찌 생각하면 정답인것도 같다.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내가,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닌가 ?, 앞으로 이놈들을 데리고 운영해  
 가야할 일들이 겹겹했다.아!! 어떻게 해야되나 ....  
 아침인데 벌써 재털이엔 담배 꾹초들이 상여가고 있었다 .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처럼 이곳 루마니아에는  
 " aici romania "( 여기는 로마니아 ) 란 말이 있으며 이 나라사람들은  
 외국인이 답답해 하거나 잘 모를때, 난감할때,일이 잘 안될때,  
 어이없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때 양손을 펴고 어깨를 으쓱 올리며  
 "아이치 로마니아" 라고 한다,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음 "루마니아 사람들 (2)"





한국 선별기가 루마니아에 들어오기 까지는 정말 많은 사연이 있었다.

두달이면 들여올수있는 기계가 꼬박 일년이 넘게 걸렸다.

루마니아 골재업계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감에따라 나를 허풍쟁이로 보는것 같았다.

현재 사용중인 루마니아 기계는 하루에 고작 150 루배정도 생산하는데 한국 기계는 놀아가면서도 하루에 1,000 루배를 한다니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기계가 있느냐고 하길래 사진을 보여줘가며 설명을 하곤 했는데 들어 온다온다 하면서 일년이 지나니 그럴만도 했다. 그런 기계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당장 구입하겠다는 업자들이 있었다.

들여와서 판매를 한다면 대당 최소 곱장사인 8~9 만불은 간단히 받겠지만 나의 생각은 기계를 들여와 하루라도 빨리 골재장을 하고 싶었다.( 98년 당시 환율은 1\$/1,850 원)

골재장을 한다면 매달 3~4 만불은 기본적으로 벌수있는데 기계를 팔아야될 이유가 없었다.

물론 돈이 있다면 기계를 많이 들여와 팔기도하면 되지만 그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한국에서 장비 임대업을하던 나도 일억 칠천만원의 부도를 맞고나니 더이상 여력이 없었다.

그나마 이제는 이곳에서 장비를 임대라도 하고있으니 더이상 한국에서 회사 운영비는 안갔다쓰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었다. 사실 더이상 가져올 돈도 없다.

이미 루마니아에 투자된돈이 약 일억 팔천, 한국에 남아있던 장비들 헐값에 팔아 부도막고나니 남은것이라곤 달랑 전세방 뿐인데 .....

그런 내 모습이 안타까와 보였는지 대우뱅크의 국부장님이 자금여력이 있어보이는 한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결국 그 사람으로인해 루마니아의 모든일과 회사가 약 일년간 수난의 기간을 맞게됐다. 외국에 나오면 같은 한국인을 조심하라는 무수한 말들이 실감났다.

후에 알게됐지만 그사람에게 안당한 사람이 없다고들 했다. 소개해준분도 나도 처음엔 전혀 몰랐던게 루마니아가 아닌 헝가리에 살고있으면서 루마니아에도 일을 하고있던중이라....

더이상 방법이 없었다. 이곳에서 생활한지도 어언 일년, 언제까지 임대업을 하면서 돈 모아 선별기 들여오기는 어려울것같고,결단을 내려야했다. 가족과도 오래 떨어져살기 어려웠다.

한국에 들어가 부인과 상의한끝에 루마니아로 다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다.

이것 저것 정리해서 선별기 기계값 주고 제작이 마치는데로 루마니아로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우리 네 식구는 루마니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내 주머니엔 남은돈 3,600불이 있었다.

1998년 10 월 23 일 밤 11 시 55 분 시골 터미널같은 루마니아 국제공항 오토페니에 내렸다.

그후 약 7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루마니아 콘스탄차항에 한국 선별기가 도착했다.

도색도 없고 그야말로 엉성하기 그지없이 얼마나 많은 사연을 앓고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때의 벅찬 가슴을 어찌 말로 표현 할수 있겠는가. 그 기계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순간 무수히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기계를 받았으니 용서하고 잊어버리자...

그후 약 15 일후 선별기에서 제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코파워회사가 아닌 아조킴이란 회사에서 ..... 전국에서 다시 많은 업자들이 몰려들어 녀을읽고 쳐다보면서 코파워의 미스타 리 를 찾았다.

그리고 곧바로 2 호 선별기를 구입하로 코파워 직원 한사람이 한국으로 출발했다.

그후 3 개월이 지나서 올로제니란 곳에 ace romania 란 간판을걸 한국인 골재장이 탄생.

다음 제 5 편 " 루마니아 사람들 "



이나라는 우기철이 4~5 월이다.

간헐적인 비가 내리는것이 아니라 새벽녘에 약 한시간 가량 소낙비가 내린후 언제 비가 왔나는 것처럼 딱 그친다.

아침에 밖을 보면 이미 물기는 다 말라있고 날씨는 화창 그 차체가 무색하리 청명하다.

임대업을 시작한지도 2 개월이 지났다. 이제야 조금씩 이나라의 스타일을 알것같다.

일하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월한것같다. 사람들도 친절하며 다소 불편한점은 장비의 기타 유류등 소모품을 지원받기가 힘들었다. 결재도 원만하고 특히 어음이 없어서 너무 좋았다,현금아니면 당좌 형태의 완벽한 수표를 받으니 그점이 마음에 들었다.

불과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 임대료로 받은 어음 부도난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세월이 많이 지난후에 알게 됐지만 이나라 사람들은 남의 돈을 떼어 먹으려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단지 거짓말을 잘하고 조금 늦어질 뿐이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칠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돈 받기는 늦어진다.

돈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 5 개월쯤 지나서 터득하게 됐는데 완벽하게 받아내는 방법을 알게됐다.그래서 8 년이 지난 지금도 단 한푼도 못받은 돈은 없으며 오히려 더 받았다.

늦은 날수만큼 이자까지도 다 받을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혹 못받는 돈 있다면 받아주겠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자존심이 있어서인지 떼이면서도 의뢰하지 않고 결국은 몇 십만불씩 떼이는것을 봤다.또한 오너가 아니기에 신경을 덜쓰면서 .....

골재업계나 건설업쪽에 우리 한국 장비와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업계에 대 혁신이 일어났다. 지방도시 몇 백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찾아와 신기하게 감탄 하면서 쳐다보곤 했다, 휠 로우더를 운전하는 우리 종선이는 일을 너무잘하는 정도를 벗어나 아름답다는 극 찬을 받으며 별명이 "푸루모스 리"(아름다운 리)라고 불려졌다.

부지런하고 요령도 안 피우면서 자기 일처럼 일들을 하는것은 물론이며 트럭 기사들이 뒷돈을 주며 암거래를 요구해도 일체 받지않고 정직하게 하다보니 회사에서 신뢰는 물론

업계에 한국인들의 인식이" 절대 검은돈이 허락 안되며 바보스럽게 정직하다"는 소문이났다. 왜 우리가 돈을 모르겠는가 !, 하지만 우리의 갈길이 임대업이 아니기에 늘 동생들에게 작은 돈에 연연하다보면 결국 작아진다는,의견하라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가 존귀케 하자며 위안을 삼을수 있도록 늘 말해주곤 했다.

이해 할수 없을 만큼 골재장이 수도주위에 많았는데 알고보니 한 골재장에서 하루에 약 100 mc 월 약 2,000 ~ 3,000 루배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부들 월급이 월 약 30 \$ 인데 골재가격은 루배당 약 6~7\$ 씩 하고 있었다, 굉장한 사업성을 발견했다.

우리나라 에서는 최소한 월 20,000 ~ 30,000 루배는 하는것으로 알고있었으며 적어도 20,000 을 못하면 적자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나는 그때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할 일"을 결정했다.

어느날인가 두 동생들을 앉혀놓고 술 한잔씩 하면서 우리가, 우리 회사가 가야할 길과,목표를 설명하고 그날을 위해 서로의 외로움과 처절하리만큼 어려운 당시의 생활을 위로했다.

건설 업계는 아직 태동도 하지 않고 있었고 머지않아 우리 회사로부터 그 시작을.....  
지금도 가끔 그때의 설레임을 기억하곤 하면서 빙긋이 혼자 웃곤한다.

그후 18개월뒤 부쿠레슈티 수도 주위에 약 60 개의 골재장중에" 한국인 골재장"이 생겼다.

다음 제 4 편 " 한국 선별기 " 편.....



4 일간 일 시작이 늦어지는데 답답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진입로는 물론 온통 눈 천지다,현장내에서 장비는 움직일수 있지만...

2 월 1 일부터 작업시작하기로 했는데 ,일 하는 시간만 임대료를 받기로 했기에 우리만 답답한것 같다. 몇일전에 한국에서 우선 종선이와 학배가 루마니아에 도착했다.

2 월 7 일 드디어 우리 한국 장비가 처음으로 루마니아에서 일을 시작한 날이다.

훔 로우더는 종선이가, 포크레인은 학배가 하기로 하고 종선이가 훔로우더를 종횡무진 현장을 휘젓고 다니며 남은 눈도 치우고 작업 준비를 하는데 현장 모든 직원 및 일꾼들 약 십여명이 장비가 움직이는데로 따라다니며 녀를 잃고 쳐다본다.

저쪽에서는 포크레인이 붕붕 거리며 스윙을 하면서 워밍업을 하고있다.

금방 현장이 북적거린다. 웬 짚차등 승용차 3 대가 도착했다.다시 십여명이 내린다.

나와 최부장이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데 이회사 사장과 며칠전계약할때 그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로 반갑게 악수를 청한다.그리고 그 큰 덩치들이 껴안으며 포옹으로 인사를 한다.

이나라의 인사 법이다. 얼굴들이 놀라고 있으며 싱글 벙글 자기들 끼리 떠들고 있다.

최부장에게 "저놈들 뭐라고 하는거요"? 했더니 " 네 장비가 아주 훌륭하답니다"

최부장은 이곳에 오신 자비랑 선교사로서 말 한마디 못하는 우리들 통역하는 분이였다. 다같이 현장 사무실로 들어가 끓인 뜨거운 포도주를 주는데 그 맛이 참 일품이였다.

겨울이면 집집마다 담가놓은 포도주를 백 포도주는 그냥 마시고 적 포도주는 이렇게 끓여서도 먹는데 추위에 덜덜 떨다가 뜨거운 포도주를 먹으니 몸이 금방 풀려왔다.

담배는 못피우는 사람이 없을만큼 다들 피우는데,아이,어른, 여자,남자 우와 다들 피우고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최부장은 도저히 참지못하고 흡지만 밖으로 나간다.

내가 자기네 말을 잘 ,아니 전혀 못알아 듣는데도 쉬지않고 뭐라고들 말을 붙인다.

개중에 영어를 조금하는 누군가가 영어로 뭐라고한다.입이 있어도 하지못하고,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답답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수 있을까. 하루라도 빨리 이나라 현지말을 배워야 겠다고 생각했다. 밖에 있는 최부장을 불러서 계약당시 하지 못했던 우리 한국사람 점심식사를 어떻게 할것인지 협의했다.

이사람들은 나중에 알았지만 형편이 괜찮은 간부급은 도시락을 싸오는데 거의 모든 직원은 형편이 어려워 점심은 안 먹고들 있었다,말들은 점심 안먹고 산다고들 하는데 얼마후 금방 가난해서 못먹는다는 사실을 알았다,하기사 월급 약 30 \$ 받고 있었다.

우리 한국사람은 처음에는 현장 소장이 점심을 준비해 왔는데 나중에는 일인당 일일 6 \$ 씩 일주일 단위로 지급받았다.이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였던가 .

나는 늘 우리 식구들에게 말했다,"이곳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 해줘라 "

"그래야 우리도 다른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할수 있으며,주위 다른 업체에도 금방 소문이 날것이니 너희들이 우리회사를 어떻게 이땅에 인식 시키느냐가 달렸다 "

"조금 힘들드라도 한국사람 한국장비가 어떻다는걸 보여줘라"나는 신신 당부했다.

이땅에서 우리의 꿈, 그 시작을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시작했다.

\* 그후 몇개월 후에 루마니아에 한국사람과 한국장비가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

- 제 3 편 " 루마니아 건설및 골재업계"



설래이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다.

직원들 출근하기전에 아침을 간단히 해먹고 오늘 약속한 미팅을 위해 준비를 해야한다.

식탁넘어 창밖은 질눈개비인지,겨울비인지 영 날씨가 찌뿌듯하다.

라두와 카르멘이 머리를 털면서 사무실로 들어선다.

"오늘 약속이 몇시이지"? 서툰 영어로 계약서 양식을 챙기며 물었다.

시간을 몰라서가 아니라 특별한 미팅이라 서둘러 준비하라는 말이었다.

다른 직원들도 다 출근했다,그중 라두와 로디카를 데리고 사무실 문을 나섰다.

어려웠던 긴 고통의 터널에서 이제 막 벗어날수있는 구세주를 만나로 가는 기분이다.

약 7~8 개월간 한푼의 수입도 없이 계속 한국에서 운영비를 조달해 썼는데 이젠

그 한계에 와 있었다. 한국의 회사 실정이 말리아니었다.

도저히 부인에게 운영 자금을 더이상 보내달라고 할 형편이 아님을 알고있다.

한국에서는 그곳 나름대로 얼마나 어려울텐데,"염병할 IMF"나도 모르게 내뱉곤한다.

결국 회사의 사업 방침을 바꿔서 장비 판매에서,장비 임대업으로 결정했고 여러 회사와 접촉한끝에 TRANS IORTACHE 란 골재회사와 임대 계약을 하기로 해서 오늘 가는것이다.

그동안 100 여개의 건설및 장비회사들을 찾아다니며 받아온 명함으로 "이것이 재산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삼고 있었다,전국적으로 안가본 곳이 없을만큼 찾아다녔다.

날씨는 질눈개비가 내리는데도 발걸음은,마음은 분명 설래고 있었다.

어 ! 우리차 앞 부분이 이상했다.뭔지 행하니 ....가까이 다가서며자세히 다시 들여다 봤다.

분명히 번호판은 우리차인 벤즈 190 이다.

차 옆으로 다가가니 기가 딱 막혔다, 세상에 이럴수가.....

몇일전에 차 유리창 깨고 카세트 등다 훔쳐갔는데 몇일이나 됐다고 뒷문짝 유리창을 깨고

앞유리는 내려져있고,차 내부는 아수라장이며 똥쪽 앞 라이트를 통째로 뜯어갔다.

깜박이 등까지 일체식으로 되어있어서 그 뜯겨나간 공간이 더 크게 보였다.

생명없는 기계지만 측은해 보였다,내린 질눈개비가 앞 뒤 시트를 충분히 적셔주고 있어서  
인지 더 불쌍하고 측은해 보였다.

아무말 없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있었다.

직원 둘이서 뭐라고 자기들 말로 해가며 슬쩍 슬쩍 내 눈치를 살핀다.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아니 있을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나는 머리가 멍 했다.

빗물에 흠뻑젖은 들개들이 혹 뭐라도 얻어 먹으려고 주위에서 맴돌며 자꾸 발에 채인다.

이 동네는 웬 개새끼들이 이리도 많은지,폭발할 울분이 이미 그 한계를 넘치고 있었다.

사정없이 발길을 내 뻘었다,한놈이 죽는다고 갹갹거리며 도망간다.

너무 기막힐때 웃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너털 웃음이 나왔다.

직원들은 미안함인지,어리둥절 어쩔줄을 모르며 차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나는 웃었다,그리고" 자 출발하자"하고 젖은 시트위에 그냥 앉았다.궁둥이가 금방  
젖어와 차가웠지만 오늘 이 일로 만만치않은 루마니아의 삶을 스스로 위안삼고 싶었다.  
종이 박스로 깨진 유리창을 막고 나니 우리 직원이 그래도 엔진은 안 흠쳐가서  
다행이라는말을 이빨을 꼭 씹으며 뒤로한체 엔진 시동을 걸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개 뺨다귀 같은 로마니아"하고 중얼대며 우리차는  
그 처참한 자리를 미끄러져 나갔다.

\* 총 4 장의 유리, 뺨미러 좌우 6 개,카세트,앞 라이트 셋트 등등을 3개월만에 분실당했으며  
그후 3 개월 후 외국인 번호판을 갱신하지 못해 고철가격 1,300 \$ 받고 판매함.

- 제 2 장 " 한국 사람 한국 장비 " 편.....



어느날 나는 부모 형제도, 친구도, 아는이도 전혀없는 낯선곳에 이방인의 자격으로 서 있었다.

바람은 왜 그리도 차던지....

몸에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추스리는데 외로움과 삶에 지쳐있는 내가 움추려든 초라한 모습으로 서있는 그곳은 바로 "루마니아"였다

인생을 살면서 지금껏 살아온 길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형편이든, 뿌리칠수 없다면....

제가 루마니아에 온지 햇수로 9년째 입니다.

이곳 루마니아에서 살아온 제 이야기를 나누고져 합니다.

중고 중장비를 팔려고 온 장사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루마니아에 관심있는 분이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조가 될까 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를 기억하고 루마니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어 좋은 글 남겨 주십시오.

루마니아 이야기는 총 130 편으로

그 1 편 "개 뺨다귀같은 로마니아" 편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2~3편씩 올릴 예정입니다.

소재는(루마니아의 생활, 풍습, 언어, 역사, 관광, 사업, 투자, 주식, 금융, 직업, 사람, 종교, 짬시, 제도, 정책, 한인사회, 주재원들, 상사원들, 등등)을 제가 그동안 작성해온 8 권의 업무 생활 일지를 토대로 거재할 계획입니다.

# 루마니아 이야기

블로그 루마니아 이야기 <http://blog.daum.net/aceromania>

저자 kopower

발행일 2013.03.31 16:44:02

 블로그